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15호 【루계 제2745호】

주체112(2023)년 4월 8일 토요일 음력 윤2월 18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인민의 세상을 마련해주신 자애로운 어버이

우리 겨레와 진보적인류가 성대히 경축하는 태양절이 다가오고있다.

20세기의 가장 걸출한 위인이시며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그리는 흠모의 노래가 강산을 울리고있다.

누리에 해빛이 찬란하고 온갖 꽃들이 만발하는 4월의 봄명절에 공화국인민의 가슴마다에 그득히 차오르는것은 과연 무엇인가.

인민이 주인이고 인민이 행복을 누리는 인민제일의 세상을 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칭송의 마음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은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대중을 력사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여주신 위대한 인민의 수령이시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인민의 세상.

돌이켜보면 착취와 억압이 없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사회, 누구나 평등하고 부러움없이 즐겁게 잘사는 세상에 대한 동경과 지향은 오랜 옛날부터 인류가 꿈꾸어온 소망이고 리상이라 해야 할것이다.

중세와 근대시기 인류를 탐혹시켰던 전설속의 《무릉도원》과 《엘도라도》, 《유토피아》와 《태양의 도시》와 같은 공상소설들은 이러한 리상향에 대한 인간소망의 투영이다.

우리 선조들도 신선이 산다는 하늘나라전설과 홍길동의 《률도국》에 그 갈망을 실었다.

인민이라는 술어가 력사책에 오르기 시작하여 수수천년이 흘렀고 노예소유자국가, 봉건제도, 자본주의사회 등 인류사는 변천을 거듭했다.

하지만 인민이 주권과 재부의 주인이 되여 복락과 영광을 누리며 사는 인민의 세상이 지구상에 과연 존재한적 있었던가.

오랜 세월 인민은 문명과 재부를 창조했지만 《천국》의 거주자는 극소수의 지배자, 부유층이였다. 부피두터운 군주제의 기록들에도 황제와 《성군》은 많았지만 인민의 《왕도락토》는 눈을 씻어도 찾아볼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은 외세에 빼앗겼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인민의 나라를 세워주신 민족의 은인이시다.

숭엄히 펼치여본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인민의 세상을 안아오시기 위한 성스러운 혁명려정에 나서시여 거룩한 생애의 마지막날까지 발표하신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그러면 주체15(1926)년 10월 17일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모임에서 한 보고 《**제국주의를 타도하자**》에서부터 주체83(1994)년 7월 6일 경제부문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하신 결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를 비롯한 수많은 로작들 어디에나 인민이라는 부름이, 인민의 행복을 위한 절절한 가르치심이 보석처럼 빛을 뿌리고있음을 알수 있다.

아마도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 새겨진 인민이라는 단어들을 하나하나 세여본다면 수많은 날과 달들이 필요할것이다.

수난많던 인민을 하늘로 떠받드시며 인민의 락원을 안아오시려 위대한 수령님 걸으신 혁명의 천만리는 얼마나 간고하고 험난했던가.

10대의 나이에 인민대중중심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20대초엽에는 항일의 유격구들에 우리 선조들이 한번도 맛보지 못했던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를 인민에게 주고 인민의 리익을 전적으로 옹호하는 인민의 참다운 세상을 펼쳐주시였다.

그리고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고 찾아주신 이 땅우에 인민의 나라를 일떠세우시였다.

여기에 인민의 심장을 울리는 가슴뜨거운 이야기가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이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새세상을 가꾸어가시던 주체36(1947)년 12월의 어느날 새벽 1시경이 되여서야 저택으로 들어서시였다.

기다리고있던 항일혁명투사들은 좀 일찌기 돌아오시면 안되는가고, 장군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혹사하시다가 몸져누우면 어떻게 하시겠는가고 안타깝게 말씀올렸다.

그러는 그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새벽문도 자신이 열어야 하고 나라의 저녁문도 자신이 닫아야 한다고, 그래야 나라가 흥하고 우리 인민이 잘살게 된다고, 예로부터 우리 인민은 오복을 소원하였는데 자신께서는 만복을 안겨주려고 한다고, 이것은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면서 마음속으로 굳게 다진 결심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며 인민의 천만가지 소원이 실현된 지상락원을 일떠세우시기 위해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면불휴의 헌신과 로고에 의하여 이 땅에는 인민이 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울려퍼지게 되였다.

인민의 웃음이 곧 어버이수령님의 기쁨이고 행복이였기에 그이께서는 온 나라 아이들에게 새 교복을 입혀주시기 위해 바치신 자신의 로고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으시고 60평생에 기쁜 날이 며칠 되지 않는데 오늘처럼 기쁘기는 처음이라시며 오랜 시간 몸소 새 교복을 입고 기뻐 어쩔줄 모르는 아이들에게 사진도 찍어주시였고 동해바다에서 많은 물고기가 잡히면 인민이 좋아할 모습을 그리시며 떠나갈 땐 빈배로 가지만 돌아올 때는 배전에 넘친다고 만시름을 잊으신듯 노래도 즐겁게 부르시였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나날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인민들을 더 잘살게 하시려고 연백벌과 온천군 금당협동농장(당시)에 인민사랑의 거룩한 자욱을 새기시였다.

하기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일찌기 수령님의 은덕으로 우리 인민은 식민지노예의 운명에서 벗어나 자주적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되찾고 참다운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되였다고 감회깊이 교시하시였다.

참으로 인민을 모든것의 주인으로, 가장 신성하고 절대적인 존재로 떠받드시며 인민의 세상,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과 불멸의 공적은 수령님의 념원이 꽃피는 조국강산과 더불어 영원히 빛날것이다.

어버이수령님 그대로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한평생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눈보라강행군, 삼복철강행군, 심야강행군을 쉬임없이 이어가시며 희생적인 헌신으로 인민의 행복을 위한 고귀한 재부들을 마련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 있어서 인민은 곧 하늘이고 스승이였다.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투철한 인민관은 당과 국가의 모든 활동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로 일관되고 인민적시책들이 변함없이 실시될수 있게 한 원동력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의 행복을 위한 만복의 씨앗들을 사회주의대지에 뿌리시고 풍성한 열매로 가꾸시기 위해 혁명령도의 전 기간 불철주야로 헌신분투하시며 명절날, 휴식일, 생신날에도 인민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고 심장의 마지막박동까지 인민을 위해 바치시였다.

펼치면 바다가 되고 쌓으면 하늘에 닿을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의 업적을 합치면 인민뿐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사랑의 력사는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그대로 이어지고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지난 주체108(2019)년 12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의 험산준령을 넘고 풍찬로숙하시며 수령님께서 꿈속에서도 소중히 그려보신것은 인민의 행복이 꽃펴나는 부강한 조국이였다고, 어떤 시련과 고난이 앞을 가로막는다 해도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야 하겠다는 결심이 굳어진다고 엄숙히 말씀하시였다.

전체 인민이 백미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하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평생념원이였고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조선혁명가들의 리상이고 투쟁목표라고 하시며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로 이 땅우에 천하제일락원을 일떠세우시고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가 세세년년 울리도록 하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팀없는 의지이고 결심이다.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위민헌신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해 나라의 곳곳에는 인민의 보금자리들과 문화정서생활기지들, 교육의 전당과 아이들의 궁전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의 새 력사가 펼쳐지고있다.

지난 2월의 봄하늘가에 메아리치며 하늘땅을 뒤흔든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과 서포지구 새 거리건설, 강동온실농장건설착공의 장엄한 뢰성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인민사랑에 의해 머지않아 현실로 될 더욱더 아름답고 환희로울 공화국의 래일을 그려보게 한다.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과 평양시 서포지구 새 거리건설착공식에 참석하시여 몸소 발파단추를 누르시고 강동온실농장건설착공의 첫삽을 뜨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한 영상을 삼가 우러르며 천만인민의 심장속에서 세차게 분출한것은 한평생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시며 인민사랑의 자욱을 끊임없이 새기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이였고 그이의 령도를 실천으로 받들어갈 철석의 맹세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최강의 국가방위력을 갖추는것을 민족자존의 중대사로, 국가의 최고리익과 인민의 안전을 위한 초미의 문제로 내세우시고 민족사적인 특대사변들을 련이어 안아오시여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후손만대의 영원한 존엄과 행복, 안녕을 담보하는 주체조선의 절대적힘을 마련해주시였다. 국가핵무력건설대업의 완성과 강위력한 주체무기들의 련이은 탄생, 불가역적인 군사기술적강세는 조국과 인민의 운명에 대한 숭고한 책임감을 안으시고 사생결단의 험로역경을 굴함없이 헤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만고생과 맞바꾼것이다. 대국들이 우리 국가와 민족의 리익을 제멋대로 흥정하려들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 인민이 억년 청청할 맑은 하늘아래서 영원히 전쟁의 참화를 모르고 자자손손 복락을 누릴수 있게 해주신것이야말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화국인민들과 후대들을 위하여 쌓아올리신 최상최대의 업적이다.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인민을 위해 한생을 불같이 사시며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며 공화국은 인민의 락원, 인민의 세상으로 영원히 무궁번영할것이다.

본사기자 배영일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탄생 111돐을 경축하여 중앙사진전람회 개막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탄생 111돐을 경축하여 중앙사진전람회 《우리식 사회주의농촌발전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이 개막되였다.

전람회장에는 사회주의농촌건설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시고 농업근로자들을 나라의 주인으로, 농촌혁명가들로 키워주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전하는 사진문헌들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황금이삭 설레이는 농장벌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3.1운동 27주년 평안남도경축대회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할데 대하여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애국미헌납운동의 첫 봉화를 올린 김제원농민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등의 사진문헌들은 농민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농사일도 의논하시며 대해같은 은덕을 베풀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고귀한 혁명생애를 가슴뜨겁게 전하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사회주의협동화의 새봄을 안아오시고 나라의 농업발전을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가르쳐주시던 잊지 못할 사연을 전하는 《대동군 원화리를 현지지도하시면서 협동조합을 조직하여 알곡생산을 늘일데 대하여 교시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청산리당총회에서 사회주의농촌경리의 정확한 운영과 관련한 과업을 제시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비롯한 사진문헌들은 참가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대홍단군종합농장을 찾으시여 감자농사에서 종자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비롯한 사진문헌들을 보면서 참가자들은 농업혁명의 불길을 지펴주시고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도록 정력적으로 령도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하였다.

《1116호농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풍년든 농장벌을 바라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거창한 온실바다로 펼쳐진 중평온실농장을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등의 사진문헌들은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을 제시하시고 우리식 사회주의농촌의 비약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가슴속에 새겨주었다.

개막식이 6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리일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최희태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리명철 평양시당위원회 비서, 관계부문 일군들, 시안의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개막사를 승정규 문화상이 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람회장을 돌아보았다.

본사기자

태양절경축 국가산업미술전시회 개막

태양절경축 국가산업미술전시회가 개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지도하시는 영상사진문헌들이 전시회장에 정중히 모셔져있다.

《산업미술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의 척후대》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몸소 지도하여주신 190여점의 대표적인 산업미술도안들을 비롯하여 전국의 산업미술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이 창작한 540여점의 각종 도안들과 실현제품, 모형 등이 전시되였다.

개막식이 6일 국가산업미술전시회장에서 진행되였다.

리성학 내각부총리,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정남 기계공업상, 김창석 경공업상, 관계부문, 산업미술부문 일군들, 창작가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개막사를 리성학 내각부총리가 하였다.

연설자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한 전인민적인 투쟁을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가고있는 시기에 태양절경축 국가산업미술전시회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참관자들이 전시회를 통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나날이 발전하는 주체적산업미술의 자랑찬 면모를 목격하게 될것이라고 그는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모든 일군들과 창작가, 교원, 연구사들이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으로 산업미술창작에서 개선을 가져오며 재능있는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낼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보았다.

본사기자

자주의 기치높이 백승을 떨쳐간다

나라와 민족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이다.

자주성을 잃으면 국호가 있어도 빛이 없고 인민이 굴종과 치욕, 불행과 고통을 면할수 없다.

조선은 자주로 존엄높고 백승을 떨치는 위대한 나라이다.

지금 세상사람들은 존엄높은 자주강국으로 위용떨치는 공화국의 발전상을 놓고 자주로선의 정당성과 생명력을 깊이 절감하고 있다.

공화국은 창건 첫날부터 선행리론이나 기존관례에 구애됨이 없이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의 의사와 리익,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왔다.

돌이켜보면 공화국이 걸어온 자주의 길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거룩한 존함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은 만인이 우러르고 따르는 자주정치의 거장이시였다.

일찌기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나라찾는 성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조선혁명을 완수하자!》는 구호를 높이 드시고 민족자주, 자력독립의 사상과 정신으로 우리 민족을 불러일으켜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신것도 민족해방, 자력독립의 기치높이 반제결사항전을 선포한 거족적인 장거인 동시에 강력한 혁명무장력에 의거하는 주체혁명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력사적사변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전 로정에서도 자주의 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시였다.

한때 대국주의자들이 국제분업을 제창하며 쎄브에 들라고 강요할 때에도 모든 문제를 주체적립장에서 분석판단하시고 쎄브에 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길을 택하신 위대한 수령님이시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민족자주위업을 빛나는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오시였다.

지난 세기 90년대 이전 쏘련과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에서 붉은기가 내리워지고 공화국인민들이 민족대국상을 당한것을 기화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해 발악할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온 세계에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도 바라지 말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화국인민앞에 자주적인민으로 존엄있게 사느냐, 또다시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느냐 하는 심각한 물음이 제기되였던 준엄한 시기 사회주의를 지켜내기만 하면 인민생활을 푸는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자주의 한길에서 추호도 물러서지 않으시였다.

후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 선군정치를 하고 선군의 상징인 오성산이 있어 나라를 지켜냈다고, 오성산이란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간고하였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가 잊혀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총대를 높이 들고나가는한 우리 인민은 자주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떨치며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워 남부럽지 않게 잘살게 될것이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은 반드시 최후승리를 이룩할것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자주의 혁명로선을 일관하게 견지해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빛나게 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자주사상의 위대한 체현자이시며 자주정치의 거장으로 세인의 칭송을 받고계신다.

우리의 투쟁은 결코 쉽지 않은 시련과 난관을 동반하게 될것이지만 자기 위업에 대한 확신과 자기 힘에 대한 자신심을 안고 국가발전의 새 지평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는것, 그 어떤 요행수나 외부의 도움이 아니라 오직 자체의 힘으로 걸음걸음 부닥치는 도전과 난국을 결연히 타개하고 우리의 구상과 결심대로, 우리가 정한 시간표대로 새시대에로의 진군을 가속화해나갈것이라는것, 바로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철의 신념이고 의지이다.

지금도 인민들은 뜨거운 격정속에 되새겨본다.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경축열병식에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펼쳐주신 자주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여기에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이 있고 종국적승리가 있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로선에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개척하고 이끌어오신 자주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민족자주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그이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가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다시금 자주는 우리 공화국의 정치철학이며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설사상에서 중핵을 이룬다고 하시면서 우리 공화국은 앞으로도 모든것을 자력자강의 원칙에서 해결해나가면서 우리 식, 우리 힘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갈것이라는데 대하여 힘있게 선언하시였다.

자주는 공화국이 나아가는 불변의 궤도이다.

자주의 길에 민족의 존엄이 있고 강성번영이 있으며 무궁한 행복이 있다는 드팀없는 신념을 지니시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주체의 원칙에서 우리 식으로 풀어나가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그이의 탁월한 령도의 손길아래 자주, 자존은 공화국인민의 생활과 투쟁방식으로, 그 무엇에도 드놀지 않는 철석의 신념으로 더욱 깊이 간직되게 되였다.

지난 10여년세월 공화국이 자주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변함없이 달려올수 있은것도, 세인을 놀래우는 창조와 변혁의 전성기가 펼쳐지게 된것도 자주, 자존으로 천하제일강국, 천하제일락원을 이 땅우에 일떠세우도록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공화국이 그 어떤 풍파에도 끄떡하지 않고 강성번영하는 자주의 성새, 절대적힘을 지닌 초대강국으로 빛을 뿌리고있는것은 그 누구의 도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주, 자존의 원칙을 변함없이 고수하며 전진하여왔기때문이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공화국은 앞으로도 동풍이 불어오든 서풍이 불어오든 그 어떤 도전과 난관이 앞을 막아서든 우리 국가와 인민의 근본리익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티끌만한 양보나 타협도 하지 않을것이며 모든것을 자력자강의 원칙에서 해결해나가면서 우리 식, 우리 힘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갈것이라고, 자주, 자존이야말로 공화국의 백승의 력사와 더불어 영원토록 구현해나가야 할 민족만대의 투쟁방식이라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치신 바와 같이 믿을것은 오직 자기 힘밖에 없다.

드넓은 행성의 수만갈래의 길가운데서 나라와 민족의 강성번영을 위한 길은 오직 자주의 한길뿐이다.

공화국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따라 자체의 힘으로, 자기의 구상과 결심대로, 자기가 정한 시간표대로 부흥강국의 휘황한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유금주

《만능의 위인을 처음 보았습니다》

◎ 세계가 공인한 불세출의 위인 ◎

위대한 **김일성**주석은 세계가 공인하는 불세출의 위인이시다.

그이의 천출위인상에 끝없이 매혹된 사람들속에는 전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브레쥬네브도 있었다.

주체55(1966)년 12월중순 위대한 수령님께서 쏘련(당시)을 방문하시여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청사에서 브레쥬네브와 회담을 하실 때의 이야기이다.

오전과 오후에 걸쳐 진행된 회담에서는 조쏘 두 나라사이의 경제문화교류와 군사문제, 사회주의진영안에서 심각하게 제기되는 의견상이와 반제반미통일전선문제 등 여러 분야의 문제들이 폭넓고 허심탄회하게 론의되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담탁에 브레쥬네브와 마주앉으시였는데 브레쥬네브앞에는 부피가 200~300페지는 실히 되여보이는 두툼한 발언원고가 놓여있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앞에는 얄팍한 수첩만이 놓여있었다.

브레쥬네브는 회담을 앞두고 언제나 발언원고를 충분히 준비하군 하였다고 한다.

그날 면담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먼저 발언하시는것으로 시작되였는데 거의 4시간동안 계속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치와 군사,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두 나라사이의 관계문제와 당면한 국제정세들을 폭넓고 구체적으로 개괄하시였다.

그런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첩 첫장을 펼쳐놓았을 뿐 거기에는 눈길 한번 돌리지 않으시고 제기되는 문제들에 거침없이 발언해나가시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브레쥬네브의 눈초리가 자꾸만 수령님앞에 놓인 수첩에로 쏠리는것이 헨둥하게 알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언을 거의 끝마치시였을 때였다.

갑자기 브레쥬네브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량손으로 책상을 짚은채 수령님의 수첩을 유심히 건너다보는것이였다.

외교관례상 있어본적이 없는 행동인지라 모두가 깜짝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김일성**동지, 이거 실례이지만 그것이 무슨 수첩입니까?

도대체 이 신기한 수첩속에 무엇이 있기에 면담발언요지도 없이 그 수첩만 놓고 각 방면의 문제들에 대하여 그리도 거침없이 말씀하십니까?》

그제서야 브레쥬네브의 돌발적인 행동이 어째서 일어났는지 알게 된 모두의 눈길이 이번에는 문제의 수첩에로 쏠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웃으시며 수첩을 드시여 《이것 말입니까?》라고 하시며 그에게 보여주시였다.

《그저 간단한 자료수첩이라 할가요. 하여간 필요한것들을 기록해두는 말그대로의 보통수첩입니다.》

브레쥬네브는 수첩을 한참동안이나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 수첩에는 삼각표식을 하고 몇글자씩 적은것이 서너줄 있을뿐이였다.

《보통수첩이라니?! …》

브레쥬네브는 혼자말로 이렇게 중얼거리며 의자에 앉았는데 그가 받은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닌것같았다.

잠시후 브레쥬네브는 흥분된 목소리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나는 지금까지 이 방에서 큰 나라, 작은 나라 할것없이 수많은 나라 수반들을 다 만나보았는데 **김일성**동지처럼 4시간이 넘도록 원고없이 발언하는 사람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연회때에도 그는 수령님께 또다시 인사를 하며 진심으로 말하였다.

《**김일성**동지, 당신이야말로 다재다능한 절세의 위인이십니다. 나는 지금까지 세계 여러 나라 수반들을 비롯하여 위인이라 하는 사람들을 수많이 만나보았지만 당신과 같은 만능의 위인을 처음 보았습니다.》

본사기자 주일봉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열어놓은 탁월한 령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뜻깊은 날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공화국인민들은 그이따라 걸어온 간고했어도 위대한 승리와 무한한 영광으로 충만된 나날들을 뜨거운 격정속에 되새겨보고있다.

참으로 가슴벅찬 격동의 세월이라고 할수 있는 이 나날 공화국에서는 인민의 꿈과 리상이 전면적으로 꽃피는 자존과 번영의 새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가 펼쳐졌다.

기나긴 력사에서 10여년은 순간과도 같다.

하지만 이 길지 않은 세월에 공화국은 만고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기적적인 승리를 련이어 이룩하며 세계가 공인하는 강대한 국력을 갖추고 세계정치구도의 변화와 국제정세흐름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국으로 급부상하였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기슭에서 시대와 인민이 부여한 가장 책임적이고도 중대한 사명을 걸머지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열어주신 주체의 한길이라는것을 엄숙히 선언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인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정식화하시였으며 당과 국가활동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시키시여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위력을 비상히 강화하도록 하시였다.

당과 국가는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고 인민은 일편단심 당과 국가를 굳게 믿고 받드는 숭고한 혼연일체, 이 위대한 일심단결은 그 어느 나라도 가질수 없고 흉내낼수도 없는 주체조선특유의 모습이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백전백승만을 떨치는 공화국의 불가항력으로 되고있다.

공화국인민이 전쟁의 불구름이 없는 맑고 푸른 하늘아래서 무궁토록 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있는 절대적힘을 마련해주신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해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중의 업적이다.

지금으로부터 10년전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병진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길을 줄기차게, 굴함없이 헤쳐오신 경애하는 원수님.

생사를 가늠할수 없는 일대 결사전, 한순간한순간을 몇백몇천년맞잡이로 살며 그 순간마다 의지와 신념을 백배로 가다듬으시며 헤쳐가신 그 길에는 폭풍이 사납다고 배에서 뛰여내리면 자멸이다, 만리길을 왔다고 해도 도중에 멈춰서면 한발자국보다도 못하다고 불같이 심신을 가다듬으시며 몸소 단정의 조타를 잡으시고 헤쳐가신 결사의 바다길도 있었고 《사회주의 오직 한길로》의 노래선률을 마음속으로 외우시며 위험천만한 시험발사장에로 야전차를 주저없이 몰아가시던 혈전의 길도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의 존엄과 민족의 운명수호를 위해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시여 걸으신 그 고행의 길, 헌신의 길에서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이 이룩되였으며 대륙간탄도미싸일, 장거리순항미싸일, 신형잠수함발사탄도탄, 극초음속미싸일, 철도기동미싸일을 비롯한 주체무기들이 련이어 개발완성되는 기적적인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공화국의 핵무력정책을 공식법화하는 일대 정치적사변을 안아오시여 핵보유국으로서의 공화국의 지위를 불가역적인것으로 되게 하시였고 공화국의 평화애호적립장과 국가핵무력정책의 투명성, 당위성을 더욱 확실히 하시였다.

하기에 상상을 초월하는 혈전의 길, 헌신의 길을 이으시여 마침내 공화국을 최강국의 지위에 우뚝 올려세워주신 절세의 애국자를 우러르는 천만인민의 마음은 매혹과 흠모의 대하되여 설레이고 그이를 따라 이 세상 끝까지 가고갈 억척의 신념과 맹세로 불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주를 불변의 정치철학으로 틀어쥐고 주체조선특유의 발전관, 발전방식을 확고히 견지해나가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국가정치제도의 우월성과 위력이 비할바없이 공고화되고 자립, 자력의 기치밑에 자립경제의 명맥을 지키며 경제전반을 지속적인 발전궤도에 올려세우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는 속에 나라의 경제전반을 빠르고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새로운 잠재력과 토대가 강력하게 구축되고있다.

사회주의의 한길을 억세게 걸어온 인민에게 하루빨리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국가의 자주권과 위상이 높이 떨쳐지는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꿈과 리상이 활짝 꽃피는 천하제일락원을 하루빨리 이 땅우에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민헌신의 초강도강행군길이 있어 인민의 리상거리들과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이 로동당시대를 대표하는 기념비적창조물로 일떠섰다. 또한 삼지연시가 산간문화도시의 표준, 리상적인 본보기지방도시로 전변되여 지방건설의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고 김화군에 지방공업발전의 본보기로 되는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이 건설되게 되였으며 중평지구와 련포지구에 온실농장의 표준, 새로운 농촌문명창조의 거점인 대규모온실농장들이 건설되게 되였다.

이 땅우에 펼쳐진 이러한 눈부신 기적과 승리들을 무한한 격정속에 돌이켜보면서 공화국인민들, 아니 세계는 령도자가 위대하면 작은 나라도 위대해지고 인민도 존엄높은 삶을 누린다는 고귀한 진리를 다시금 절감하고있다.

공화국인민들은 절세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은 승승장구할것이며 이 땅우에 인민의 꿈과 리상이 꽃펴나는 사회주의강국, 천하제일락원은 반드시 일떠서게 될것이라는 철석의 의지를 안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자주의 한길, 사회주의의 한길만을 따라 더욱 힘차게 나아갈것이며 그 성스러운 길우에서 모든 승리와 영광을 맞이할것이다.

허룡

늘어나는 인민의 재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가장 환하게 웃으시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인민의 행복을 위한 일을 해놓으실 때이다.

언제인가 어느한 수산사업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초겨울에 억수로 쏟아지는 찬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외투자락이 흠뻑 젖도록 이채어경을 이룬 포구며 사업소의 곳곳을 다 돌아보시였다.

물고기랭동저장실에까지 들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산더미같이 쌓인 물고기산을 바라보시며 이윽토록 걸음을 떼지 못하시였다.

찬비에 젖었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외투에는 하얗게 성에가 불리였지만 그이께서는 인민들과 병사들에게 물고기를 먹이게 된것이 못내 기쁘시여 보시오, 물고기가 아니라 금피들을 쌓아놓은것같지 않소라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그이의 존안에는 기쁨이 넘쳐흘렀지만 그이의 옷자락에 맺힌 하얀 얼음발들을 보는 일군들의 눈에서는 뜨거운것이 흘러내렸다.

그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뜨거운 인민사랑이 어려있는 물고기를 받아안고 기쁨속에 웃고 떠드는 인민들의 사진을 받아보시고 정말 이런 멋에, 이렇게 순간에 속이 한번씩 뭉클해오는 행복에 도취되여보려고 힘들어도 웃으며 투쟁속에 사는것같다고 하시였다.

인민을 위함이라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우실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인민에 대한 사랑은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에도 뜨겁게 어려있다.

어느해인가 삼지연시를 현지지도하시는 길에 이미 여러 차례나 찾아주시였던 이 공장에 또다시 들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천t의 감자가루를 생산하여 산같이 쌓아놓은 풍경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면서 지난해에 감자저장고에 쌓아놓았던 감자들이 오늘은 감자가루산이 되였다고, 훌륭한 풍경이라고 하시였다.

북부고산지대에서 처음 보는 감자작황과 감자가루산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심혈과 로고,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것이다.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기와 구체적인 지도에 의하여 새로 건설된것이다.

일군들이 감자가루를 보며 밀가루같기도 하고 우유가루같기도 하다고 할 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감자가루때문에 하도 마음을 써서인지 자신에게는 뼈가루처럼 보인다고 말씀하시였다.

인민을 위한 길에서 한몸이 그대로 모래알이 되여 뿌려진대도 더 바랄것이 없다는 숭고한 인생관을 지니시고 위민헌신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인민을 위해서라면 천만고생도 달게 여기시며 인민의 기쁨과 웃음에서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해 이 땅에는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펼쳐지고있다.

지난해에만도 수도 평양에 인민의 리상거리, 사회주의번화가인 송화거리와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가 일떠서고 온천군 금성리를 비롯한 도처의 농촌마을들에 현대문명이 응축된 살림집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 인민의 기쁨을 한껏 더해주었다. 또한 련포지구에 100정보온실과 농장살림집지구가 일떠서 이 일대가 완전히 천지개벽되고 함흥시를 비롯한 함경남도인민들의 식생활에 많은 보탬을 주게 되였으며 김화군이 지방경제발전의 시대적본보기, 지방문명의 새로운 척도로 전변되였다.

이밖에도 현대적인 대성산아이스크림공장과 대동력기지 어랑천발전소의 팔향언제가 일떠서고 금성뜨락또르공장 1단계 개건현대화공사가 완공된것을 비롯하여 혹독한 난관들이 무수히 겹쌓인 속에서도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는 행복과 번영의 재부들이 련이어 마련되였다.

올해에 들어와서도 인민의 어버이의 뜨거운 사랑의 손길에 의해 인민을 위한 행복의 재부들을 더 많이 창조하기 위한 거창한 사업들이 련이어 펼쳐지고있다.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과 평양시민들의 남새보장을 위한 대규모강동온실농장건설이 착공의 요란한 발파소리를 울린데 이어 수도의 북쪽관문에 4 000여세대의 살림집을 비롯한 각이한 건축물들이 일떠서는 웅장화려한 새 거리건설의 착공식이 성대히 진행되여 온 나라 인민들을 기쁨과 격정에 휩싸이게 했다.

인민들에게 하나를 주시면 열백을 더 주고싶어하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의 인민사랑은 한계가 없다.

나라의 공업도시, 과학도시인 함흥시와 함경남도인민들의 남새보장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몸소 건설부지를 확정해주시고 착공의 첫삽도 뜨시면서 련포지구에 희한한 온실바다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신 사랑이 적으신듯 온실남새생산의 집약화, 공업화수준을 높이는데 필요한 륜전기재들과 많은 설비들을 보내주시는 은정을 또다시 베풀어주시였다.

인민을 위한 재부를 마련해주시고 그 재부가 인민들에게 실지 덕을 줄수 있는것으로 되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사랑이 그대로 어려있는 선물을 받아안고 사람들은 누구나 감격의 눈물로 두볼을 적시였다.

우리 당은 당을 진심으로 따르는 인민의 마음을 혁명의 제일재부로 소중히 간직할것이며 용감하고 슬기롭고 아름다운 우리 인민을 위하여 만짐을 지고 가시발도 헤치며 미래의 휘황한 모든것을 당겨올것이라고 하시면서 무한한 사랑과 헌신으로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의 새 경륜을 끊임없이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공화국은 머지않아 천하제일락원, 천하제일강국으로 행성의 중심에 우뚝 솟아오를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월

함께 울고웃으며 사는 화목한 대가정

아름다운 사회가 아름다운 인간을 만든다

공화국에서는 동지들과 집단, 이웃을 위하여 자신을 바치는 평범한 사람들이 만사람의 존경과 축복을 받고있다.

얼마전 하반신마비의 한 영예군인을 일으켜세운 함경북도제3전문외과병원의 의료일군들이 바로 그런 주인공들이다.

우리가 영예군인의 담당의사를 만났을 때 그가 한 말은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영예군인이 다시 대지를 밟을수 있게 된것은 담당의사 한사람의 의술이 남달라서가 아닙니다. 온 병원의 의료일군들이 그의 담당의사였고 친혈육이였습니다.》

바로 그것이였다.

환자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며 그것을 가셔주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친 이곳 의료일군들의 지극한 정성이 하반신이 마비되였던 영예군인이 다시 대지를 활보하게 한것이다.

이 병원의 모든 의료일군들이 그렇듯 뜨거운 인간애의 소유자들이지만 특히 지광우원장은 지난 40여년간 수많은 환자들에게 자기의 피와 살을 아낌없이 바쳐온 참된 의료일군이다.

몇해전 뜻하지 않은 일로 온몸에 심한 화상을 당한 7살 난 어린이가 실려왔을 때에도 그는 말없이 자기 팔을 걷어올리였다.

그때를 추억하며 병원의 한 오랜 의료일군은 이렇게 말하였다.

《자기 피는 O형이고 천성적으로 육체는 건강하기때문에 피를 뽑아도 일없다, 바로 이것이 젊은 시절의 원장선생을 막아설수 없었던 리유였습니다. 허나 70살을 바라보는 오늘에 와서는 자기를 바쳐 젊은 생들을 구원하는게 오히려 나라에는 리득이라고 하면서 늘 앞장에 서고있습니다.》

원장의 뒤를 따라 수많은 의료일군들이 팔을 걷고나섰고 끝끝내 어린 생명을 기적적으로 살려낼수 있었다.

어린이가 회복되여 퇴원하던 날 그의 어머니는 자식을 품에 안고 누구에게라 없이 말했다.

《정성이면 돌우에도 꽃을 피운다고 고마운 의사선생님들의 정성이 우리 아이를 살려주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보건일군들을 키워낸 고마운 우리 제도에 큰절을 드리고싶습니다.》

자기보다 동지와 집단을 먼저 생각하고 그 길에서 삶의 보람을 찾는 사람들이 어찌 이들뿐이랴. 공화국의 모든 사람들이 남을 위해 자기를 아낌없이 바치는 미덕과 미풍의 소유자들이다.

하다면 덕과 정으로 화목하며 집단주의위력으로 만난을 뚫고나가는 공화국의 우월한 사회제도는 어디에 뿌리를 둔것인가.

태양의 빛발이 있어 대지우에 온갖 꽃이 만발하듯이 절세위인의 현명한 령도와 열화같은 인민사랑이 있어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리는 그윽한 인간적향기가 넘쳐흐르는 공화국이다.

만사람의 찬양을 받을만한 소행을 발휘하고도 너무나 응당한 본분으로 여기며 이름도 주소도 남기지 않는 고상한 품성을 지닌 인간들 한사람한사람을 빠짐없이 찾아 내세워주고 값높은 명예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다심하신 손길은 공화국의 도덕적기초를 더욱 굳건하게 하여주고있다.

참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인민사랑, 인간사랑과 현명한 령도가 있어 공화국은 세상에 둘도 없는 인간사랑의 화원, 미덕의 화원으로 세인의 칭송을 받고있다.

《제가 한 일이 무슨 큰일이겠습니까.》

《이 나라의 공민이라면 응당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그런 정황에서라면 그렇게 하였을것입니다.》

이처럼 남을 위해 자기를 바치는것을 응당한것으로 여기는 아름다운 인간들이 사는 공화국의 사회주의사회를 보며 세상사람들은 말한다.

아름다운 사회가 아름다운 인간을 만든다고.

본사기자 리연선

국가의 따뜻한 보살핌속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년로자보호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제되여있다.

《년로자의 생활과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아주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한 시책이다. 국가는 년로자보호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년로자에게 보다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도록 한다.》

공화국에서는 년로자들의 건강과 생활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아주고있으며 로인들을 존경하고 우대하는것이 사회적인 풍조로 되고있다.

돌이켜보면 국가가 년로자들을 책임지고 돌봐주는 인민적인 시책이 실시되고 년로자들을 존경하고 우대하는것이 사회적기풍으로 확립되게 된것은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수십년전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승호군 만달리에 자리잡고있는 양로원을 찾으시여 나라에서 로인님들을 잘 돌봐드리겠다고 하시며 생활의 구석구석을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당과 국가가 년로자들의 건강과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아주며 사회적으로 년로자들을 존경하고 우대하며 그들이 불편없이 여생을 보낼수 있게 온갖 조건을 보장해주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년로자들의 생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신다.

조선식합각지붕을 떠이고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자리잡고있는 평양양로원에 가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온돌침실의 방바닥에 깐 돗자리며 폭신하게 만든 방석과 등받이, 각종 전자제품들과 옷장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도 령도자의 육친의 사랑이 깃들지 않은것이 없다.

옷장에는 솜옷이며 모자, 여름옷, 운동복과 우수한 민족의상인 조선옷이 주런이 걸려있고 신발장에는 철따라 신을 갖가지 신발들이 꽉 차있으며 화장대에는 처녀들도 부러워할 고급화장품들이 놓여있다.

뿐만아니라 곁에 있는 애육원, 육아원원아들의 글읽는 소리, 노래소리를 늘 들을수 있고 멋들어지게 꾸려진 수경온실이며 숲의 향기가 싱그럽게 풍겨오는 마당이 있는 평양양로원에서 로인들은 끼니때마다 맛있고 영양가높은 보양음식들을 봉사받고있다.

공화국에서는 이미 수십년전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에서 년로자들의 생활과 건강을 책임적으로 돌봐줄데 대하여 규정하였다.

그리고 2007년 4월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년로자보호법이 채택되여 년로자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줄수 있는 튼튼한 법적담보가 마련되였다.

나날이 더욱 뜨거워지는 국가의 보살핌속에 공화국에서는 백살장수자들이 늘어나고있으며 그들은 백번째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은정어린 생일상까지 받아안고있다.

년로자는 그 어느 나라에나 있다.

하지만 어떤 사회제도인가에 따라 그들의 운명에서는 하늘땅같은 차이가 있다.

온갖 패륜패덕이 범람하고 극단한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년로자들이 사회의 골치거리로 되고있지만 서로 돕고 이끌며 위해주고 아껴주는것이 미덕으로, 국풍으로 되고있는 고마운 공화국의 품에서 년로자들은 사랑과 존경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하기에 대동강반에 훌륭히 일떠선 평양양로원을 찾았던 외국의 한 인사는 《이곳이야말로 조선에만 있는 로인들의 행복의 보금자리이며 천국이다.》라고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한없이 위대한 사랑의 품에 안겨사는 끝없는 긍지를 이 땅의 년로자들은 한목소리로 자랑한다.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의 품에서 령도자의 각별한 사랑을 받아안으며 사는 이 나라의 년로자들처럼 복받은 인생은 이 세상에 없다고.

본사기자 김혜성

《우리 학급동무》라는 말을 들으며

투고

며칠전 아침 학교가는 딸애를 바래주던 나는 아이의 책가방이 여느날과 달리 불룩한감을 느끼였다.

(분명 어제 시간표에 따라 교과서와 학습장들을 갈아넣을 때에도 저렇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리유를 물으니 딸애는 생긋 웃으면서 내 목에 찰찰 감겨들었다.

오늘 학급동무들과 함께 병원에 입원한 동무에게 면회를 가는데 엄마가 어제 사준 그림책과 단묵을 주려고 한다면서.

아이가 열어보이는 가방에는 정말 그전날 내가 사준 세계명작동화집과 단묵봉지가 들어있었다.

나는 놀랐다.

그렇게 가지고싶어하던 그림책과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 아닌가.

나는 딸에게 물었다.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것을 동무에게 다 주고 후회하지 않겠는가고.

《엄마두 참, 우리 학급동무인데요 뭐.》

《우리 학급동무》.

참으로 정다운 부름말이다.

달랑달랑 책가방을 메고 학교로 뛰여가는 아이의 뒤모습을 창가로 내다보는데 코노래가 절로 흘러나왔다.

우리 학급동무들 하나같이
공부 잘해
수학도 1등 문학도 1등
모두다 1등이야
랄랄라 랄라라 랄랄랄라
우리 학급동무들
제일이야 제일이야
…

이 노래와 함께 흘러간 나의 학창시절이 떠올랐다.

승벽내기로 공부하다가도 성적이 뒤떨어진 동무를 위해 모여앉아 저마끔 《선생님》이 되군 하던 우리 학급동무들, 높이뛰기와 너비뛰기를 제대로 하지 못해 안타까와하는 한 동무를 위해 땅거미가 질게 내린 운동장에서 손전지까지 비쳐주며 《훈련》을 주던 학급동무들, 병원에 실려간 동무가 걱정되여 선생님과 함께 수술실앞에서 온밤을 지새우던 그 시절 우리 학급동무들의 낯익은 얼굴들이 눈앞에 안겨들었다.

《우리 학급동무》라는 그 정다운 부름과 더불어 내가 자랐고 이제는 내 자식이 학창시절을 보내고있다는 생각으로 마음 흥그러워지는데 뒤이어 찾아드는 생각이 있었다.

한학급동무들에게서 시시각각 받는 따돌림과 모욕, 협박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남조선의 학생들에 대한 생각이였다.

몇해전에도 인천시의 한 중학교학생이 집단따돌림과 폭행을 받다가 아빠트옥상에서 떨어져 자살하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한다.

남조선의 많은 학부모들은 학교가 따돌림과 모욕, 협박이 란무하는 곳이라고 하면서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것을 꺼려하고있으며 학생들도 폭력이 무서워 학교에 가는것을 두려워하고있다고 한다.

《학교폭력때문에 학생들이 1년 내내 울고있다. 1 000명의 학생들이 있다면 1 000가지의 학교폭력이 존재한다. 이것은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되고있다.》며 개탄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울려나오고있는 남조선이다. 지어 교원들까지 학생들의 폭언과 폭행의 대상이 되고있다.

얼마나 이지러진 사회인가.

나의 생각은 더욱 깊어졌다.

자기가 본대로 느끼고 사고하며 행동하는것이 바로 아이들이다.

그래서 아이들의 눈동자에 어머니가 비끼고 그 사회가 비끼며 미래가 비낀다고 말하지 않는가.

《너 아니면 나》, 《네 인생은 네가》, 《너를 짓밟아야 내가 산다.》는 인생관이 생리로, 풍조로 되고있는 썩어빠진 사회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는가.

패륜패덕, 약육강식의 생존방식, 끔찍한 범죄이다.

그러나 공화국의 아이들은 어떠한가.

남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여기고, 자기보다 먼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런 숭고한 인생관을 체질화한 아름다운 부모들의 슬하에서 자라고 온 사회에 공기처럼 흐르는 수많은 미덕과 미풍에 대한 이야기들을 노래처럼 들으며 성장해왔다.

이런 아이들이기에 어려서부터 《나》라는 부름보다 《우리》라는 부름을 좋아하고 동무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동무의 기쁨을 자기 기쁨으로 생각하는 고상하고 건전한 품성을 소유할수 있는것이며 이로 하여 교정에는 서로 돕고 이끄는 따뜻한 정과 사랑이 흐르는것이다.

《우리 학급동무》.

그 부름속에서 나는 한껏 느꼈다.

덕과 정이 국풍으로, 풍조로 되여있는 사회주의대가정, 우리 사회주의제도의 향기를.

평양시 보통강구역 홍진미

▶▶▶ 《통일신보》가 만난 사람들 ◀◀◀

궁궁이약초에 어린 애국의 향기

예로부터 아름다움과 부드러움을 녀성의 대명사로 일러왔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공화국녀성들의 강직하고 고상한 품성, 불같은 애국심을 다는 알수 없다.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 인생의 보람도 행복도 있다는 고결한 인생관을 지니고 고려약연구에 한생을 바쳐가고있는 고월선녀성의 모습은 이 나라 녀성들의 삶이 무엇으로 하여 그토록 아름답고 값높은것인가를 웅변으로 보여주고있다.

스스로 맡아안은 연구과제

《고려약연구에 한생을 바쳐온 애국자》, 《쉽지 않은 발명가》…

고월선녀성을 가리켜 사람들 누구나 이렇게 말하며 존경과 부러움을 표시한다.

선조들이 창조하고 발전시켜온 민족의 귀중한 유산인 고려약연구에서 남다른 성과를 이룩한 고월선녀성을 취재하기 위해 얼마전 우리는 대성구역 미암동에 있는 그의 집을 찾았다.

고월선녀성의 집은 사람들로 흥성이고있었다.

알고보니 고심어린 탐구끝에 얼마전 궁궁이약초로 혈액순환계통에 특효있는 건강식품을 새롭게 개발하여 국가규격을 받은 그를 축하해주러 온 사람들이였다.

사람들이 안겨주는 꽃다발에 묻혀 행복의 웃음을 짓는 그의 어깨너머로 과학기술공적증이며 전국과학기술축전증서, 과학기술성과등록증, 전국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메달증서, 국내외동포들의 평양의학과학토론회증서, 창의고안증서, 새 제품출품증서들과 메달 등이 아름차게 안겨왔다.

사람마다 잊지 못할 추억이 있듯이 60고개를 넘어선 고월선녀성에게도 한생의 전부와도 같은 지울수 없는 40여년세월이 있다.

그의 집 한개 벽면을 꽉 채우고도 남는 각종 증서와 수많은 메달들이 지나온 그 나날들에 대해 말해주고있었다.

궁궁이약초, 그와 더불어 고월선녀성의 한생이 흘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넘기 어려운 고비도 있었고 성공의 기쁨도 있었던 하많은 사연을 어찌 한두마디로 다 전할수 있으랴.

《젊은 시절 내짚은 한걸음이 수십년세월로 이어질줄을 몰랐습니다. 어려서 약초의 신비한 효능에 대한 호기심이 고려약연구의 길로 떠밀었다고 해야 할지…》

흘러간 세월의 년륜인듯 고월선녀성의 주름잡힌 두눈가에 추억의 빛이 짙어갔다.

혜산이 고향인 그는 10살 나던 해에 고려약으로 급성소화불량증을 고친적이 있었다고 한다.

이때부터 그는 마을주변의 산과 들을 다니며 갖가지 약초들을 채집하고 표본책도 만들었다.

약초의 신비한 효능이 고려약에 대한 어린 소녀의 호기심을 자아냈던것이다.

날이 감에 따라 더욱 깊어지는 고려약에 대한 애착을 안고 그는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사리원고려약학대학을 지망하였다.

대학시절은 그에게 고려약의 특이한 효능과 그 제조방법에 대한 과학기술적기초를 다져주었을뿐 아니라 고려약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생활습성과 체질적특성에 맞는 나라의 귀중한 재부임을 깊이 새겨주었다.

대학에서 약초와 관련한 강의를 받으며 그는 북부고산지대에서 잘 자라는 궁궁이(일명 천궁)약초가 피를 잘 돌게 하고 머리아픔, 어지럼증, 고혈압 등 혈액순환기질병치료에 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자기 고향에서도 많이 자라는 궁궁이약초가 그렇듯 효능높은 약초일줄은 미처 몰랐었다.

하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궁궁이약초가 치료에 널리 도입되지 못하고있었다.

(우리 나라의 약초를 주원료로 하는 세계적수준의 고려약을 만들어 인민들이 그 덕을 보게 하자.)

이것은 20대의 젊은 혈기에 그가 스스로 걸머진 연구과제였다.

애국의 값진 열매

지금으로부터 29년전인 1994년 가을, 량강도는 물론 함경남북도와 평안북도 등의 험한 산발을 오르내리며 약초를 채취하는 한 녀성이 있었다.

그가 바로 대홍단군병원 약제사로 일하는 고월선이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군병원 약제사로 일하면서 궁궁이약초의 약리작용과 재배방법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고 얼마든지 주사약을 만들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그는 지체없이 궁궁이약초를 찾아 험한 산에 올랐다. 이렇게 떠난 길이였다.

손과 얼굴이 가시덤불에 할퀴우고 낭떠러지에서 굴러떨어지면서도 굴함이 없이 산발을 오르내리며 약초를 채취하고 그것을 재배하면서 성분분석을 비롯한 연구사업까지 동시에 하자니 별의별 고생이란 고생을 다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허나 성공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약초는 산에서 채취하면 되는데 부족한것은 연구에 필요한 시약과 실험기구들이였다.

설상가상으로 연구를 시작하자마자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였다. 나라가 제일 어려웠던 시기에 실험에 필요한 자금은 어디서 마련하겠는가.

그때 자기 한몸, 한가정의 안락을 먼저 생각했더라면 그는 사정없이 밀려드는 시련의 파도에 휘말려 쓰러진지 오랬을것이다.

련속되는 실험, 뒤따르는 실패…

어렵고 힘에 부칠 때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고마운 사람들이 있었다.

건강은 일없는가, 필요한것은 무엇인가 알아보며 사심없는 방조를 준 대홍단군인민위원회와 대홍단군병원의 일군들, 꼭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신심을 주며 진심으로 도와준 대홍단사람들, 그의 착상을 과학적으로 론증하기 위해 지혜를 합쳐주고 열정을 기울여준 보건성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일군들과 연구사들…

그 고마운 손길들과 뜨거운 마음들이 난관앞에서 잠시나마 주저하던 그를 고무해주었다.

언제 성공할지 모르는 탐구의 길이였지만 후회하거나 물러서지 않았다.

고월선녀성이 쓴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2012년 8월 8일.

오늘은 나의 일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다. 오늘 드디여 궁궁이혈전주사약이 성공하여 국가규격을 받았다. 꼭 18년만의 성공이다. 얼마나 고대하던 순간인가. 이제는 우리 인민들이 값눅고 효능높은 고려약의 덕을 보게 되였다는 기쁨으로 눈물이 걷잡을새 없이 흘러내렸다. …》

대홍단군병원 약제사로 일하는 나날 그가 연구개발한 궁궁이혈전주사약은 신약을 전혀 쓰지 않으면서도 뇌혈전예방과 치료에서 효능이 높을뿐 아니라 사용주기가 짧고 재발이 없는것으로 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특허를 받았다.

그리고 수많은 전시회와 전람회, 과학기술축전들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성과에 만족을 모르는 고월선녀성은 그후 평양에 올라와 살면서 년로보장을 받은 후에도 궁궁이약초의 약리작용범위를 더욱 넓히고 치료효과를 보다 높이기 위한 연구사업을 중단없이 벌려 얼마전에는 궁궁이혈압하강싸락약을 개발하여 국가규격을 받았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깨끗한 량심을 안고 수십년세월 과학탐구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고월선녀성의 숨은 공로를 헤아리시고 영광의 대회장에도 불러주시고 주실수 있는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베풀어주시였다.

애국의 열매는 이렇듯 값진것이다.

고월선녀성은 말하였다.

《우리 과학자들을 끝없이 아끼고 내세워주시는 절세위인들의 품이 아니였다면 오늘의 성공에 대해 어찌 생각이나 할수 있겠습니까. 인민의 생명과 건강증진을 첫자리에 놓으시고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쉼없이 줄달음치겠습니다.》

그의 심장은 절세위인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모든것을 다 바쳐 받들어나갈 열의로 고동치고있었다.

우리는 그가 궁궁이약초로 개발한 건강식품을 맛보았다.

그윽한 약초향기가 기분을 상쾌하게 했다. 단순한 향기가 아니였다.

한 녀성고려의학자의 고결한 생이 비낀 아름다운 삶의 향기, 애국의 향기였다.

본사기자 홍범식

이역의 동포들이 전하는 위대한 어버이의 뜨거운 은정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이 가까와올수록 이 나라 강산에 민족의 어버이에 대한 그리움의 대하가 세차게 굽이치고있다.

한평생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한 헌신의 한평생을 수놓아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불멸의 업적을 돌이켜보는 천만사람들속에는 이역의 동포들도 있다.

여기에 한권의 도서가 있다.

《**김일성**주석회고기》 제1권.

도서에는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뵈온 총련일군들과 교육자, 예술인, 상공인 등 각계각층 재일동포들의 격정의 체험담이 수록되여있다.

위대한 어버이의 정과 열의 세계를 영원히 잊을수 없어 이역의 아들딸들은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뵈온 영광의 그날들을 추억하는 회상실기들을 심장의 붓으로 써냈다. 도서를 펼치면 하많은 력사의 사연들이 물결쳐온다.

일찌기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이국살이의 설음이 어떤것인가를 너무도 가슴아프게 체험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남달리 아끼고 극진히 위해주시며 온갖 사랑과 은정을 아낌없이 베풀어주시였다.

길가에 나딩구는 조약돌처럼 이리 채우고 저리 밟히우던 자기들에게 참다운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열화같은 사랑의 손길로 걸음걸음 이끌어주신 어버이수령님.

주체62(1973)년 9월 공화국창건 25돐경축 재일조선인축하단 성원들이 받아안은 사랑은 오늘도 만사람의 눈시울을 뜨겁게 적셔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조국으로 오는 대표단성원들이 경유하게 되여있는 유럽의 한 나라의 날씨를 알아보시고 그들이 갑자기 들이닥친 추위로 하여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잘 돌봐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겨울옷을 마련하여 보내주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것은 멀리 떠나있는 자식을 위해 마음쓰는 친부모의 심정 그대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탄생 110돐에 즈음하여 꽃바구니를 진정하는 총련중앙일군들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이 슴배인 포근한 겨울옷을 입고, 어버이수령님께서 보내주신 특별비행기를 타고 이국의 광야와 산발을 날아넘어 어머니조국의 품에 안겼던 그들이 10여일간의 조국체류기간 받아안은 사랑과 은정은 또 그 얼마였던가.

웅장화려한 평양지하철도 개통식에 참가한 재일조선인축하단 성원들을 알아보시고 먼길에 오느라고 수고가 많았겠다고 하시며 일일이 손도 잡아주시고 개통을 선포한 지하전동차에 오르시여 이역의 자식들에게 먼저 자리를 권하신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며칠후에는 먼 이국땅으로 돌아갈 동무들인데 만나주지 않으면 얼마나 섭섭해하겠는가고, 시간이 좀 지체되더라도 그들을 만나고 떠나자고 하시며 현지지도의 길을 돌려 숙소를 찾아주시고 잘 가라고, 이국땅에서 앓지들 말라고 하시던 그날의 우리 수령님의 그 갈리신 음성을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잊지 못하는 이역의 동포들이다.

주체64(1975)년 가을에 있은 일도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준다.

당시 어버이수령님께서 취해주신 조치에 따라 해외에서 경제무역활동을 벌리고 조국으로 돌아오던 재일동포상공인들은 하루동안에 3개 나라를 경유하게 되였다.

일행중에 생일을 맞는 상공인이 있다는것을 아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해당 나라 주재 대표부들에서 생일상을 잘 차려줄데 대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하여 그 상공인은 하루동안에 세번이나 생일상을 받아안게 되였다.

하루동안에 세번이나 받아안은 생일상.

그것은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 안겨 값높은 삶을 누리는 애국적상공인들만이 받아안을수 있는 남다른 영광이고 행복이였다.

태양의 품에 안겨 성장한 총련예술인들의 가슴속에도 한생토록 잊지 못할 추억이 간직되여있다.

주체63(1974)년 4월 14일 재일조선인예술단은 준공을 선포한지 얼마 안되는 인민문화궁전에서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공연하는 영광을 지니였다.

공연종목이 바뀔 때마다 제일먼저 박수도 쳐주시고 재청도 해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공연이 끝난 후 예술단성원들과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고 매 사람에게 자신의 존함이 새겨진 시계도 채워주시며 한량없는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그날 저녁 성대한 연회가 진행되였을 때였다.

연회장에 들어서시던 그이께서는 독창을 하였던 한 예술인을 찾으시며 그가 어디에 앉았는가고 물으시였다. 예술단 단장이 어버이수령님께 꽃바구니를 드릴 준비를 하고있다고 말씀올리자 그이께서는 자신께서 차린 연회인데 무슨 꽃바구니를 받겠는가고 하시며 어서 그를 부르라고 하시였다.

녀성독창가수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노래를 아주 잘 불렀다고 치하하시고나서 자신의 앞자리에 앉혀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곁에 앉아있는 조국의 일군들에게 동무들은 늘 우리와 같이 있는데 오늘은 이 동무들에게 자리를 좀 양보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며 총련의 여러 대표단, 방문단 단장, 부단장들과 재일조선인예술단 성원들을 자신의 몸가까이로 불러주시였다. 총련의 예술인들은 이날 그토록 화목하고 단란한 분위기를 난생처음으로 체험하였다.

만사람의 심장을 울리는 이런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다 하자면 정녕 끝이 없으며 재일조선인운동사는 이런 전설같은 사랑의 서사시로 수놓아져있다.

저 하늘의 태양도 이 땅을 골고루 비치지 못하지만 재일동포들을 위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에는 한점의 그늘도 없었다.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이렇듯 불같은 사랑과 하늘같은 믿음이 있었기에 재일동포들은 공화국의 강위력한 해외교포조직인 총련의 역군으로 억세게 자라날수 있었다.

참으로 《**김일성**주석회고기》 제1권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과 고매한 위인적풍모에 대한 칭송의 기록이고 태양의 빛발속에서 해외동포들이 어떻게 성장해왔는가를 감명깊게 전해주는 력사적재보이다.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대성인이시며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고결한 인품과 덕망은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영원히 전해질것이다.

본사기자 전 영 민

자주의 철리, 민족의 넋을 새겨주시여

군사교육은 조선식으로 하여야 한다

주체35(1946)년 8월 16일 저녁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해방직후 남포와 함경북도에 파견하시였던 항일투사들인 김경석과 박성철을 평양으로 부르시였다.

《동무들이 그동안 지방에 나가서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 자리까지 권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건강한 동무들의 모습을 보니 대단히 기쁘다고, 동무들을 부른것은 다름이 아니라 중앙보안간부학교에 파견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 김경석을 중앙보안간부학교 정치부교장으로, 박성철을 교무부장으로 각각 임명해주시였다.

또다시 중요한 초소로 불러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에 투사들은 약속이나 한듯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그들을 미덥게 바라보시며 손을 드시여 어서 앉으라고 이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시 조성된 정세로부터 나서는 정규무력건설의 절박성에 대하여 언급하시고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당을 강화하고 인민정권을 튼튼히 꾸리는데 준비된 간부들이 많이 요구되지만 정규무력건설사업이 매우 중요하기때문에 항일무장투쟁에서 단련된 동무들을 우선 무력건설부문에 많이 보냈으며 오늘은 또 동무들을 중앙보안간부학교에 정치부교장과 교무부장으로 파견하게 됩니다.》

그러시고 그들이 해야 할 임무에 대하여 가르쳐주시면서 군사교육을 강화하는것은 중앙보안간부학교의 중요한 임무의 하나이라는것, 군사교육에서 중요한것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군사지식을 배워주는것이라는것을 강조하시고 이렇게 이르시였다.

《동무들은 과거 항일무장투쟁시기의 군사교육경험을 잘 살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때 적들과 싸우면서 우리의 실정에 맞는 유격전법을 하나하나 완성하였으며 그것으로 대원들을 교육하였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유격대는 항상 전투에서 적들보다 전술적으로 우세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군사지식을 주는것, 이것이 군사교육에서 기본입니다.》

당시 중앙보안간부학교에서는 군사교육문제를 놓고 이 나라 식이 어떻소, 저 나라 식이 어떻소 하면서 론의가 많았다. 일부 사람들이 정규군대생활도 해보지 못하였고 군관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일도 없는데 군사에 대하여 이렇소저렇소하고 말하는것은 그들이 외국에 있을 때 보고 들은것을 가지고 하는 소리였다.

중앙보안간부학교를 운영하는데서 군사교육을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는것은 앞으로 건설될 정규무력의 골간들을 키우는데서 관건적인 문제였다.

그런데 사대주의, 교조주의에 물젖은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다른 나라의 것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면서 군사교육사업에 적지 않은 저해와 혼란을 주고있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에 대해 들려주시면서 다시금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동무들은 절대로 남의것을 기계적으로 본따지 말고 확고한 주견을 가지고 우리의 실정에 맞게 학생들을 교육교양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항일투사 최용진을 중앙보안간부학교 군사부교장으로 파견하시면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강조하신것이 바로 군사교육을 철저히 우리 식대로 할데 대한 문제였다.

다른 문제에서는 혹 도움을 받을수 있겠지만 무력건설만은 절대로 다른 나라에 의거하지 말아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금 절감하며 투사들은 힘차게 대답을 올리였다.

《장군님, 저희들을 중앙보안간부학교에 파견하신 의도를 똑똑히 알았습니다. 장군님의 가르치심대로 군사교육을 조선식으로 하겠습니다.》

본사기자 김 영 진

지배와 굴종, 범죄의 력사는 감출수 없다

남조선의 민족문화발전을 가로막은 미국의 책동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은 문화분야에서도 악랄하게 감행되였다.

문화분야에서의 미국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은 일제가 남겨놓은 문화적락후성을 유지하고 심화시키며 고유한 우리 겨레의 민족문화를 말살하는데로 돌려졌다.

미군정의 이러한 정책으로 남조선의 성인근로자들의 절대다수가 의연히 문맹자로 남아있게 되였다.

1948년 당시 남조선의 《국민학교》수는 일제때의 수자와 거의 같은것이였으며 미제의 우민화정책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이 일제때나 다름없이 배움의 권리를 짓밟히였다.

남조선을 강점한 미국은 수많은 학교들을 미제강점군의 군수품창고, 음탕한 사교장 등으로 리용하였고 지어는 교육시설을 마구 파괴하는 만행까지 감행하였다.

미군정은 1946년 9월에 반인민적인 이중교육체계와 식민지교육체계가 그대로 답습된 소위 《신학제》를 조작실시하였고 교수내용은 일제시기의것을 고스란히 물려받게 하였다. 《공민》, 《국사》, 《국어》 등 반동사상으로 가득찬 관제교과서가 강요되였다. 미국은 강권으로 각급 학교들에 일제때의 악질친일교원들과 반동교원들을 무더기로 쓸어넣었다.

문예분야에서도 미국은 1946년 2월에 《극장 및 흥행취체령》을, 10월에는 《영화허가에 관한 법령》(115호)을 공포하여 민주주의적연극과 영화의 공연 및 상영을 금지시켰다.

미국에 의하여 출판물을 비롯한 선전수단들이 친미, 친일세력들의 수중에 넘어갔는가 하면 신문들은 반동적정치기사에 일부 지면을 할당하고는 나머지 대부분의 지면을 부패타락한 미국식생활양식을 퍼뜨리는 저속한 소설, 만화류로 메꾸었다.

연극도 《반공》일색으로 변색하기 시작하였으며 《반공》과 염세를 고취하는 가요들이 만들어져 류포되였다.

1946년 12월 미군정의 《명령》으로 공포된 《영화상영규칙》에 의해서 남조선의 어느 극장이나 영화관을 막론하고 3개월중 52일간은 《중앙영화배급소》에서 판매하는 미국영화를 무조건 돌려야만 하였다. 이리하여 부패타락한 미국영화가 남조선에서 판을 치게 되였다.

미군정은 또한 1946년 3월에 일제때에도 법인단체로 존재하던 서울방송국을 군정청 공보부에 이관시켜 저들이 직접 장악통제하는 어용방송으로 전락시키고 남조선의 방송을 식민지예속화의 도구로 전변시켰다.

이 모든것은 해방후 미제가 남조선에서 민족문화발전을 저애하고 말살하기 위해 얼마나 악랄하게 책동하였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본사기자 박 해 방

민족의 단합과 번영을 위한 길에서

절세위인께 매혹되여 (3)

해방을 맞은 우리 겨레의 가슴가슴은 20성상 백두산에서 항일의 혈전을 벌리시여 나라를 찾아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그리움의 정으로 부글부글 끓고있었다.

그속에는 길림시절부터 어버이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흠모하며 그이의 동지로 투쟁해왔던 최일천선생도 있었다.

최일천선생은 1945년 8월 15일 왜왕의 노루비명같은 패망연설이 있은지 얼마후에 조선혁명당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정치활동을 시작하였다.

바로 이날 선생은 동료들에게 하나의 정당이라기보다 옛 정의부와 조선혁명당계독립운동자들이 모여 **김일성**장군환영준비를 잘해나가기 위한 조직이라는 의미에서 조선혁명당간판을 내걸었다고 하면서 그 준비사업을 잘해나갈데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당시 남조선의 각지에서는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가지가지의 전설적이야기들이 나돌고 남조선인민들은 그이에 대하여 알고싶은 욕망을 억제하지 못해하였다.

한편 이런 흐름에 역행하여 손때묻은 주구 리승만을 내세워 식민지통치의 지반을 닦으려는 미국의 책동이 로골화되였고 저들만이 애국지사이고 독립투사인듯이 허황한 요설로 인민들을 기만우롱하는 어중이떠중이들, 황당한 책들을 써내여 우리 겨레의 해방투쟁사를 더럽히고 있는 매문가들이 또한 서울장안을 돌아쳤다.

이러한 혼잡속에서 진실을 밝히고 진정한 위인을 세상에 알려야 할 지성인의 력사적사명감을 깨닫고 려운형, 홍명희 등 애국인사들과 함께 연설, 강연으로 낮과 밤을 보내던 최일천선생은 어느날 안해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형세로 보아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의 혁명투쟁자료들을 가지고 글을 써서 책으로 찍어내는것은 우리 지성인들앞에 나서는 가장 중대한 과제요. 나는 이 력사적과제를 곧 해결하기로 결심하였소.》

그러고는 지금껏 간난신고를 겪으며 수집하고 귀중히 보관해온 어버이수령님의 혁명활동자료와 그것을 수록한 신문, 잡지들, 만주일대에서의 조선독립운동자료들을 꺼내놓았다.

그날부터 최일천선생은 필자가 되고 안해는 조수가 되여 절세의 위인에 대한 책자집필에 달라붙었다.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의 집필과 동시에 선생은 어버이수령님의 서울입성을 환영하는 준비위원회를 뭇기 위한 사업으로 뛰여다녔다.

선생은 반일애국활동경력을 가진데다가 일반군중과 좌익과 우익에서도 명망이 높은 홍명희선생으로 하여금 **김일성**장군환영준비위원회결성을 발기해나서도록 청원하였다.

홍명희선생은 그의 제의에 쾌히 동의해나서면서 지금 정계, 사회계, 항간에서 어버이수령님에 대하여 알고싶어하는 열망이 드높아가니 그에 대한 해답으로 최일천선생이 집필하고있는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가 하루빨리 출판되도록 해야겠다고 고무해주었다.

이리하여 **김일성**장군환영준비위원회결성사업과 최일천선생의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의 집필발행사업은 련관된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되게 되였으며 이 사업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조국에 개선하시여 당창건위업을 실현하시고 온 민족앞에 개선연설을 하시였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에 더욱 본격화되였다.

선생은 애국적인 정치활동으로 늘 바쁜 몸이였지만 집필사업에 혼신의 힘을 쏟았다.

드디여 1945년 12월초 최일천선생의 변함없는 충정과 신념, 불같은 열정과 지성의 산물인 도서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 제1집이 세상에 나왔다.

책은 서점에 나가자마자 순식간에 판매되였으며 사방에서 구독요청이 불같아 재판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여기에서 힘을 얻은 선생은 제2집의 집필도 련이어 시작하여 얼마후에는 출판본을 내놓게 되였다.

생활에서 가장 고상한 향락은 의무를 수행했다는 기쁨이라고 하였다.

세계명인사에 전무후무한 조선민족이 낳은 걸출한 령도자의 혁명력사를 체험자, 증견자의 한사람으로서 책으로 출판해낸 그때의 선생의 기쁨을 어찌 한두마디 말로 다 표현할수 있으랴.

해방직후 복잡하고 어려운 정국에서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가 출간되고 **김일성**장군환영준비위원회가 결성된것은 민족의 태양이신 어버이수령님을 해방조선의 유일한 령도자로 받들어 모시고 살아가려는 남조선인민들의 일치한 지향과 흠모심의 반영이였으며 반동세력에 대한 애국력량의 자랑찬 승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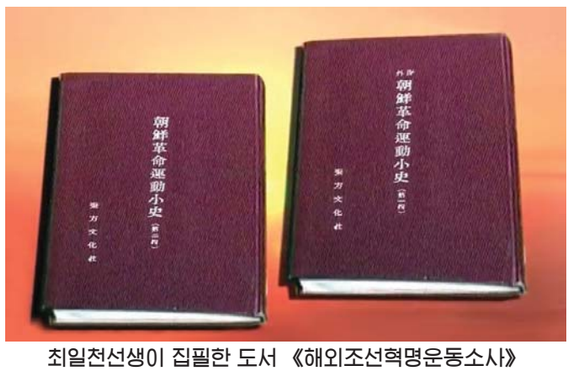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는 어버이수령님의 항일혁명력사를 수록한 력사문헌인 동시에 해방직후 남조선에서 민족적영웅, 절세의 애국자의 혁명업적을 소개선전하여 출판된 책인것으로 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였다.

최일천선생은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 제2집을 낸 다음 다음권에서 어버이수령님의 혁명활동을 전면적으로 서술할 계획이였으나 해방후 복잡한 남조선정치정세로 인하여 시간을 내지 못함으로써 아쉽게도 그 계획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였다.

해방직후 정치적혼잡과 무질서가 지배하던 서울장안에서 최일천선생이 온갖 정신력을 다 동원하여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와 같이 무게있는 글을 써냈다는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며 그 글의 가치는 실로 헤아릴수 없는것이였다.

참으로 어버이수령님의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사의 증견자이며 재능있고 열정적인 문필가 최일천선생이 아니고서는 할수 없는 일이였다.

본사기자



최일천선생이 집필한 도서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

더욱 로골화되는 일본의 력사외곡책동, 누구때문인가

알려진것처럼 윤석열역도의 일본행각이후 섬나라것들은 더욱 오만방자해져 다음해 초등학교들에서 리용할 교과서를 심의하면서 과거 저들이 저지른 죄악을 외곡날조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묵인하고 통과시켰다.

섬나라것들은 교과서들에서 일제의 조선인강제징병과 강제로동범죄를 《지원》과 《동원》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강제성을 은폐시켰으며 반인륜적범죄인 일본군성노예문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간또대지진때 저들이 감행한 전대미문의 조선인대학살만행범죄와 관련한 내용을 완전히 삭제해버렸으며 우리 민족의 신성한 령토인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의 고유한 령토》 등으로 표현을 바꾸어 령토강탈주장을 한층 강화하였다.

과거 저들이 저지른 피비린 죄악을 없애거나 파렴치하게 뜯어고친 이 외곡된 력사교과서들이 다음해부터 정식 교재로 리용될 때 자라나는 일본의 새세대들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또 일본사회를 어디로 떠밀겠는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수 있다.

바다물맛을 알기엔 한방울이면 충분하다.

력사교과서개악책동 하나를 놓고서도 쓰디쓴 패전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침략의 력사를 다시금 되풀이하려고 발광하는 섬나라것들의 기도를 잘 알수 있다.

일본사회를 우경화하고 군국주의망령을 되살려 재침야망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일본의 책동이 오늘처럼 무분별한 지경에 이른것은 집권후부터 오늘까지 친일매국행위를 일삼아온 윤석열역도의 망동과 결코 떼여놓고 볼수 없다.

친일사대근성이 뼈속까지 차있는 윤석열역도는 집권전부터 일본과의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운운하며 왜나라것들이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치떨리는 과거죄악을 무마시키려는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냈다.

또한 집권후에는 섬나라와의 《관계개선》을 주장하며 일본것들이 개최한 국제관함식에 함선을 파견하여 군국주의상징인 《욱일기》에 머리를 조아리였는가 하면 일제가 저지른 조선인강제징용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는것이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장애로 된다고 하면서 일본전범기업자산현금화를 막기 위한 기구까지 내오며 섬나라것들에게 아부하였다.

특히 지난 3월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팔아먹은 대가로 섬나라에 발을 들이민 윤석열역도는 행각기간 우리 겨레에게 저지른 일제의 만고죄악을 묵인하고 왜나라것들의 군사대국화와 재침책동에 적극 추종하는 망동을 부림으로써 온 민족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냈다.

섬나라것들은 윤석열역도와 그 패당의 이러한 친일사대매국행위에 더욱 기가 살아 과거죄악을 부정하고 군국주의부활과 재침야욕실현에 피눈이 되여 날뛰는가 하면 후대들에게 복수주의감정까지 심어주며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어떻게 하나 실현해보려고 발광하고있는것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이야말로 하루빨리 청산해버려야 할 천하매국역적들이다.

우리 겨레는 피비린 과거죄악을 미화분식하며 재침책동에 미쳐날뛰는 섬나라것들과 이러한 천년숙적에게 아부굴종하고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해치고있는 만고역적무리인 윤석열역적패당의 추악한 사대매국행위들을 절대로 용서치 않고 반드시 결산할것이다.

본사기자 주 광 일

굴종의 땅에서 울리는 처량한 장송곡

남조선의 윤석열역적패당이 미국과의 《호상방위조약》체결 70년이 되는 이해에 친미사대매국적본색을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다.

그 무슨 《호상방위조약》이라는것은 지난 조선전쟁에서 처참하게 패한 후 주구를 위로하고 전쟁하수인으로 철저히 얽매여놓으려는 미국과 상전에게 더욱 의지해보려는 괴뢰들의 흉심이 배맞아 조작된 침략조약, 예속조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적패당은 이를 《기념》하겠다고 하면서 지난 조선전쟁시기 미군의 총알받이가 되여 개죽음을 당해야 했던 전쟁대포밥, 식민지노복들이 상전만 쳐다보며 중얼거리던 넉두리인 《같이 갑시다.》를 열창하고있다.

사대와 허무가 짙은 이 헛소리에서도 미국이 없으면 살수 없는 역적패당의 가련한 구걸소리, 절망의 신음소리를 들을수 있다.

* *

《같이》라는 말은 《서로 함께》라는 의미이다.

하다면 수평적인 《동맹》관계가 아니라 철저히 수직적인 주종관계의 미국과 남조선이 지금까지 《서로 함께》 왔다고 할수 있겠는가.

주인에게 얽매인 원숭이가 사람흉내나 낸다고 주인과 같은 지위와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한다면 아마 세상을 웃길것이다.

미군의 군화발에 짓밟힌 그날부터 남조선은 언제한번 미국과 어깨나란히는 고사하고 하내비로, 상전으로 섬기기에만 급급하면서 오늘에까지 이르렀다.

그 주제에 누구와 어디로 같이 간다는것인가.

엄밀히 따지면 같이 가는것이 아니라 식민지예속의 굴레를 쓰고 멍에를 지고 끌려가는것이고 항상 구걸의 쪽박차고 허겁지겁 쫓아가는것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상전이 매놓은 예속의 멍에와 굴레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남조선군의 작전지휘권을 틀어쥔 《군통수권이양에 관한 협정》, 미국의 불법무도한 남조선영구강점을 합법화한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 남조선강점 미군의 《치외법권》적인 지위를 규제한 불평등한 《행정협정》…

지난 70여년간 남조선의 정치풍향계를 조종해온것도 바다건너 미국이다.

남조선에는 그 무슨 《대통령》이니, 《정권》이니 하는것들도 있고 정치경제적, 사회제도적구조도 갖추어졌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외세의 손끝에 의해 놀아나는 꼭두각시들이고 그 조종체계일뿐이다.

일찌기 어느한 애국지사가 단죄한것처럼 아직 나라를 찾기도 전에 팔아먹은 을사오적보다 더한 역적이나 민족의 넋마저 저버린채 《다까끼 다께오》라는 일본이름으로 왜왕에게 혈서까지 바친자들이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아 《애국자》로 행세했던 땅, 부피두터운 《친일인명사전》에 오르고도 친미로 둔갑한 덕에 오늘도 향락을 누리고있는 사대매국노들의 안식처가 바로 남조선이다.

미국을 멀리하면 그만큼 정치수명이 감소된다는것을 모르지 않기에 그 누구도 《반미》나 《자주》라는 말을 절대로 입밖에 내지 못하는 현대판 식민지노예들의 서식지이기도 하다.

남조선에서 《대통령》이란 대양건너에서의 추첨에 의한 당선물이고 페기물이라는것은 너무도 잘 알려진 《정치공학》이다.

미국이 《아》 하면 《아》 하고 따라 웨쳐야 하는것이 주구의 가련한 신세이다.

70년전 공화국군대의 강력한 타격전에 심대한 패배를 당하고 담판장에서 정전협정체결을 서두르지 않을수 없게 된 미국상전의 서글픈 심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허수아비같은 리승만도당은 주제넘게도 정전협정체결을 한사코 반대하면서 미국이 정전협정에 조인하는 경우 《유엔군》에서 탈퇴하여 단독으로라도 싸우며 정전협정조항들도 지키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떠벌여대였었다. 당시 제 처지도 모르고 푼수없이 놀아대는 그 추태가 얼마나 역겨웠던지 미국의 소문난 시사평론가이며 《뉴욕 헤랄드 트리뷴》 특별기고가인 월터 리프맨은 신문에 발표한 글에서 《개꼬리가 자기 몸뚱이를 흔들수 있는가?》라는 말로 신랄하게 야유하였었다.

그래서 남조선항간에서는 오래전부터 《〈국민〉이 뽑고 미국이 쓰는 〈대통령〉》이라는 말이 상식처럼 되여있다.

분명 저 땅에는 자주도, 민족적자존심과 넋도 없다.

정치가 이 모양이니 경제는 더욱 한심하다.

외국자본의 투자가 없으면 금시 휘청거리는 예속경제, 해외에서의 물자수입을 못하면 수출마저 주저앉는 기형경제,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한파》가 들이닥치면 무더기파산이 생겨나는 껍데기경제가 남조선경제이다.

최근 미국이 《세계적인 포괄적전략동맹》이니, 《경제안보동맹》이니 하지만 지난해가 보여주듯이 《인플레감축법》, 《반도체보호법》 등의 《미국우선주의》, 《미국제일주의》는 남조선을 《동맹》이 아니라 자국경제의 방목지로나 여기는 정도이다.

그러니 남조선경제는 대양너머에서 기침소리만 나도 비지땀을 흘리며 페염을 앓게 되는것이다.

사회도 철저히 《미국화》되여가고있다.

남조선에 만연된 《미국행》은 사람들의 머리속에 미국에 대한 사대의존과 노예적굴종의식을 가득 채워넣었고 황금만능과 약육강식의 미국식가치관, 생활방식으로 사회는 부패할대로 부패해졌다.

이뿐이 아니다.

미국은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의 군사적재침책동에 박수를 쳐주면서 윤석열역적패당에게 친미사대와 함께 친일사대를 강박하고있다.

친일에 뿌리를 두고 변이번식된 친미를 바통으로 이어받은 윤석열역적패당의 망동으로 해방 78년이 되여오는 지금 남조선에서는 력사의 시계바늘이 거꾸로 돌아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던 1905년과 같은 몸서리치는 광경들이 펼쳐지고있다.

지난날 우리 민족에게 갖은 불행과 재난을 들씌운 일본이 과거에 잘못한게 없다며 사죄와 배상도 거부하고 오히려 우리 민족의 신성한 령토인 독도를 내놓으라고 제편에서 큰소리치고있다.

반면에 윤석열역적패당은 일본에 《관계개선》을 구걸하면서 천년숙적이 물어야 할 조선인강제징용과 관련한 배상도 저들이 대신 물겠노라고 굽석대고있다.

독립만세의 함성을 터친 3.1인민봉기 104년이 되는 날에도 일본의 조선강점을 합리화하다 못해 일본이 침략자에서 《협력의 동반자》로 변했다는 매국망발을 늘어놓는 윤석열역도때문에 남조선에서는 《리완용의 궤변 그대로이다.》, 《일본이 파견한 조선총독같다.》, 《일본〈자위대〉가 이 땅을 타고 앉을가봐 두렵다.》는 불안에 찬 목소리들이 계속 울려나오고있지 않는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백번천번 용서를 빌어도 시원치 않겠는데 거꾸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관계개선》을 구걸하고 재침의 칼을 가는 《자위대》에 군사정보도 제공해주며 퍼줄것은 다 퍼주고있는 거꾸로 된 이 현실.

이렇게 남조선이 미국과 일본의 2중식민지로 전락해가고있는것도 다름아닌 윤석열역적패당이 미국에 철저히 추종한 결과이다.

미국에 의해, 미국을 위해 예속의 멍에에 매여 비틀거리며 떠밀려오고 끌려오고서도 앞으로도 같이 가겠다고 하는것은 예속과 굴종의 길을 계속 이어가겠으니 제발 버리지 말아달라는 식민지노복의 가련한 구걸소리가 아니겠는가.

자주권을 잃고 자존능력을 상실하면 이렇게 절로 바보가 되는 법이다.

미국이 같이 가자고 애걸하는 남조선을 《기특》하게 여기며 등을 두드려주는것은 아직 주구로서의 가치가 있기때문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남조선에는 이 행성에 각인된 특이한 별명이 하나 붙어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구》라는 오명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미국의 충견이고 번견이라는것이다.

《주구》라는 말은 《달음질 잘하는 개》, 즉 사냥개라는 뜻이다.

사냥개는 주인만 따르고 주인이 시키는대로만 한다.

문제는 미국이 강요하는것들이 골라골라 제일 위험천만한 일들이라는데 있다.

미국에 떨어지는 벼락을 대신 맞아주는 방패노릇을 해야 하고 상전이 꺼려하는 진펄에도 대신 뛰여들어야 하는 제물이 되기도 해야 한다.

미국은 《안보》라는 달콤한 미끼를 던져주고는 감지덕지해하는 남조선을 항상 북침전쟁수행의 돌격대로 내몰고 총알받이로 내세워왔다.

조선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던가.

—불만 질러놓으라. 그러면 유엔에 제소하여 북조선이 《남침》했다고 떠들게 하고 대규모미군을 증파하겠다. 그때까지만 견지하라.—

바로 미국의 이런 치밀한 각본에 따라 리승만일당은 38°선의 전 구간에 걸쳐 전면적인 북침공격을 개시하였던것이다.

지금도 가장 친미적이고 굴종적인 윤석열역적패당을 각종 간판을 단 북침전쟁불장난소동에 내몰면서 조선반도정세를 각일각 핵전쟁문턱에로 바싹 몰아가는 미국이다.

이런 미국을 등대고 윤석열역적패당은 《확장억제력강화》니, 《단호한 응징》이니, 《종말》이니 하며 반공화국대결과 전쟁광기를 한껏 부려대고있다.

친미에 환장한 이런 얼간이들의 망동으로 공화국이 오래동안 벌려온 정의의 반미대결전은 오늘에 와서 보다 무서운 반미—대남대결전으로 번져지게 되였다.

못난 역적패당이 나 죽여주소 하며 공화국핵무력의 조준경에만 제 몸뚱이를 들이민것이 아니다.

저들에게는 한갖 무용지물이고 고물단지인 《싸드》따위나 만지작거리는 윤석열역적패당에 의해 남조선은 조선반도주변국들의 싸늘한 눈총을 받으며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를 미싸일타격의 과녁이 되였다.

지금 이 시각에도 미국주도의 《인디아태평양경제틀거리》와 《칩4동맹》가입 등 역적패당이 상전의 《신랭전돌격대》, 《종미나팔수》가 되여 분별을 잃고 날침으로써 주변나라들로부터 미국을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말라, 쌍방관계에 악영향을 미칠것이라는 경고와 압박을 련일 받고있는 형편이다.

이런것을 보고 하나를 얻으려다가 열을 잃는다고 한다.

모든것이 다 역적패당이 스스로 초래한 쓸개빠진 짓거리이다.

그러니 역적패당이 짖어대는 《같이 갑시다.》라는 역스러운 소리는 미국의 꽁무니만 쫓아다니다 여기저기서 얻어맞는 동네북신세, 헤여나올수 없는 미궁에 빠져 상전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식민지충견의 가련한 신음소리라고 해야 할것이다.

정말 바보를 고치는 약은 없다는 말이 실감난다.

하다면 윤석열역적패당이 왜 한사코 미국과 같이 가겠다고 하겠는가.

—미국의 옷자락을 놓으면 죽는다.—

이것은 력대 남조선통치배들의 고질화되고 변할수 없는 신조이기때문이다.

윤석열역도가 미국을 하내비처럼 받들수밖에 없는것도, 미국이 불러대는 곳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천방지축 달려가는것도 상전에게 잘 보여 비루한 명줄을 하루라도 더 이어보려는 가련한 몸부림에 불과하다.

저지른 엄청난 죄악으로 하여 남조선에 사상최악의 위기를 몰아오고 안팎으로 저주와 배격을 받아 운명이 경각에 이른 역적패당에게는 결국 매달릴데라고는 미국밖에 없다.

그래서 더욱 목이 쉬게 미국과의 《혈맹》을 부르짖고 같이 가자고 애걸복걸하는것이다.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미국의 본성이 도대체 무엇인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상전의 뒤를 쫓아 스스로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들고있다는데 역적패당의 숙명적인 비극이 있다.

미국은 이른바 《동맹》관계에서도 득실의 수판알을 명백히 때리는 철저한 자국중심의 나라이다.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눈알을 뽑기 위해 머리를 쓸어주고 간을 끄집어내기 위해 등을 두드려주지만 일단 다 파먹었다고 생각하면 헌신짝버리듯 가차없이 차던진다.

1960년대 미국만 믿고 날뛰던 남부웰남의 괴뢰정권이 상전의 버림을 받아 어떻게 되였는가는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루지야의 이전 대통령이였던 쉐바르드나제는 미국의 《가장 친밀한 동맹자》로 되였다가 바로 그 미국의 모략에 의해 권력의 자리에서 축출되지 않으면 안되였다.

아이띠에서 미국에 의해 집권한 아리스띠드도 후에는 미국에 의해 랍치되여 강제출국당하는 비참한 신세를 당하였다.

2021년 8월 세계《최강》을 자랑하는 미국은 민병대수준의 무력에 쫓기여 20년동안 타고앉아있던 아프가니스탄에서 황급히 쫓겨가는 국제적망신을 당하였다. 미국이 억대의 자금을 퍼부어 무장시켰던 아프가니스탄괴뢰군과 괴뢰정부는 미국이 쫓겨가자마자 순간에 허물어졌다. 미국의 힘도 만능이 아니며 미국에 명줄을 걸었다가는 어떻게 되는가를 아프가니스탄사태를 보며 세인은 똑똑히 새기였다.

남조선에서도 이와 류사하고 더 비극적인 사건이 얼마나 많았던가.

미국에 의해 길들여지고 미국에 의해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았던 리승만이지만 4.19인민봉기로 운명이 경각에 달하게 되자 미국은 더 이상 쓸모없게 된 오랜 주구를 쓴 오이꼭지를 오물통에 버리듯 가차없이 차던지였다.

미국의 각본에 따라 미국제땅크를 몰고 권력을 강탈했던 박정희를 쓰러뜨린 궁정동의 총소리는 다름아닌 《유신》독재자가 구세주로 믿던 미국이 주구에게 보낸 마지막인사였다.

영원한 빗도, 영원한 적수도 없다는 서방세계의 론리대로 미국이 운운하는 《동맹》이란 형세에 따라, 리속에 따라 언제든지, 얼마든지 변할수 있고 버릴수 있는 《동맹》이다.

더우기 윤석열역적패당이 운명의 신처럼 여기는 미국은 예전의 초대국이 아니다.

늙어빠지고 이발까지 빠져 하수인들의 부축임이 없이는 유지할수 없는 비루먹은 승냥이이다.

현 미행정부가 《오커스》, 《인디아태평양경제틀거리》, 《푸른태평양동반자들》, 《칩4동맹》, 《쿼드》, 《화이브 아이즈》 등 《그물형다자동맹체제》를 형성하고있는것도 손아래《동맹국》들의 부축임을 받아야만 하는 가련한 처지를 실증해준다.

강권과 폭제를 휘두르며 피라미드형 제국시대에 군림하던 이른바 《유일초대국》의 운명은 이미 서산으로 기울어졌다.

《북조선은 태평양을 넘어 미국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완비하였다.》, 《미국은 대조선제재와 압박이 결코 방책으로 될수 없다는것을 인정하고 대조선정책을 대담하게 전환해야 한다.》, 《이제는 미본토에 북조선의 핵미싸일들이 떨어지는것은 북조선의 결심에 달려있다.》

대양건너에서 울려나오는 불안에 찬 목소리에서도 조락하는 미국의 운명을 엿볼수 있다.

세상에 악의 실체를 드러낸 이래 자국본토에 포탄 한발 떨어져본적 없다고 으시대다가 지금은 최악의 핵공포증에 분분초초 시달리고있는 미국이 주구의 실오리같은 운명을 걱정해줄 겨를이 없다는것이야 자명하지 않는가.

그런데도 윤석열역적패당은 미국과 같이 가자고 애원한다.

그속에 비운이 드리운 상전의 운명에서 자기의 종말을 보는 주구의 불안과 공포가 비껴있다.

그래서 어쩔수없이 미국에 더 바싹 매달리며 같이 가자고 애걸복걸하고있는것이다.

주구는 살아도 주구이고 죽어도 주구일뿐이다.

미국의 주구로 사는 길, 그 길의 종착점은 비참한 종말밖에 없다.

세계는 파멸의 비탈길로 정신없이 곤두박질하는 미국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같이 가자고 애원하는 윤석열역적패당의 피이한 넉두리에서 종말의 무덤속에 같이 빠져드는 순장노예들의 처량한 장송곡소리를 듣는다.

본사기자 김정혁

《윤석열심판과 퇴진을 위한 대장정을 시작하자》

남조선에서 윤석열역적패당을 단죄규탄하는 각계층의 투쟁이 날로 고조되는 가운데 지난 3월 25일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참가한 《3.25시민행동대회》가 서울에서 진행되였다.

140여개의 단체를 망라한 《서울시국회의》의 주최로 진행된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파쑈폭압과 반인민적악정, 반공화국대결과 외세추종을 일삼는 윤석열역적패당을 규탄하며 투쟁기세를 올리였다.

이들은 《윤석열〈정권〉은 조선반도에 전쟁만 몰아오는것이 아니라 로동자, 농민, 민중들과도 전쟁중》이라고 하면서 《서울시민들이 앞장서 윤석열심판과 퇴진을 위한 대장정을 시작하자.》고 목소리를 높이였다.

또한 《탄압에는 항쟁이다. 이제 우리는 반격에 나선다. 윤석열〈정부〉의 폭주에 맞서싸울것이다. 우리 민중은 독재〈정권〉에 맞서 스스로 력사를 만들어왔던것처럼 오늘 민중승리의 대항쟁을 시작한다.》고 선포하였다.

참가자들은 《윤석열〈정권〉심판》이라고 적힌 구호판들을 들고 호르래기를 불며 시위행진을 벌리였다.

한편 이날 윤석열역적패당을 규탄하는 로동자, 농민, 빈민대회들도 각각 진행되였다.

《민주로총》결의대회에서 발언한 《민주로총》 위원장은 《최근 〈건설로조〉, 〈민주로총〉을 향한 폭력집단화, 〈색갈론〉을 앞세워 진행되는 탄압의 본질은 로동자들의 권리를 빼앗아 노예로동의 시대로 돌아가겠다는것이며 검찰독재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겠다는것》이라고 까밝히면서 《로동개악에 맞선 총파업태세를 구축해 5월총궐기투쟁, 6월최저임금투쟁, 7월총파업투쟁을 통해 윤석열〈정부〉를 끝장낼것》을 결의하였다.

《전국농민회총련맹》은 결의대회에서 《농민의 힘으로 〈량곡관리법〉을 전면개정하고 스스로 생존권쟁취에 나설것》이라고 하면서 《윤석열〈정부〉를 갈아엎는 투쟁》을 벌려나갈것을 다짐하였다.

《빈민해방실천련대》가 주최한 《로점말살저지, 철거민강제퇴거중단, 윤석열〈정권〉공안탄압규탄투쟁대회》에서도 참가자들은 《대형건설사들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개발을 용납하는 〈정권〉, 로점상 대표들을 구속하며 공안탄압을 일삼는 〈정권〉을 반대하여 투쟁할것》을 결의하였다.

《윤석열〈정권〉심판 당원대회》를 연 《진보당》은 《굴욕외교를 일삼고 민중을 일하는 기계로 여기며 검찰권력을 사유화하여 사회를 민주화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윤석열을 그대로 둘수 없다.》고 하면서 오는 5월 10일 윤석열《정권》취임 1년이 되는 날을 《윤석열심판의 날》로 만들것을 결의하였다.

본사기자

어리석은 기도, 부질없는 대응놀음

얼마전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고고도요격미싸일체계 《싸드》의 원격발사대전개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였다.

미국은 남조선에 《싸드》를 배비한지 6년만에 처음으로 이번 훈련을 벌려놓고 고도화된 《북의 미싸일위협》에 대비하여 《싸드》의 전투준비와 남조선미국련합방위태세를 강화하였다느니,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리행의지》를 보여주었다느니 하고 떠들어댔다.

날로 더욱 가속적으로 확대강화되고있는 공화국의 무제한한 압도적이며 능동적인 핵대응태세에 얼혼이 나간자들의 부질없는 대응놀음이 아닐수 없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3월 공화국은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침략적인 《프리덤 쉴드》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무모한 반공화국군사적도발과 전쟁연습에 고도화되고 실전화된 핵전쟁억제력으로 단호히 대응하였다.

중요작전임무를 담당하고있는 군부대들의 화력습격훈련,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형발사, 전술핵운용부대들의 핵반격가상종합훈련, 중요무기시험과 전략적목적의 발사훈련을 비롯한 공화국핵무력의 초강세에 혼비백산한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속에서는 북이 새로운 무기체계들과 다양한 핵타격수단들의 위력을 련이어 과시하고있다, 《한》미의 미싸일요격체계가 북의 다양한 핵무기앞에 완전한 무용지물이라는것이 드러났다는 등의 비명소리가 련이어 터져나왔고 《프리덤 쉴드》를 비롯한 각종 북침전쟁연습들은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핵전쟁억제능력의 압도적시위에 대한 뒤치닥거리나 해야 하는 훈련으로 되게 되였다.

그야말로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허세성객기와 만용은 공화국의 단호한 군사적대응에 불품이 없게 되였고 남조선에서는 핵전쟁공포증, 《안보불안》이 급격히 고조되였다.

이로부터 미국것들은 넝마짝처럼 된 저들의 체면을 세우는 한편 남조선에 대한 《방위공약》을 지키기 위해 미국이 있다는 생색을 내고 동시에 남조선내부에서 급격히 확대되고있는 핵공포증을 가라앉혀보려고 《싸드》의 원격발사대전개훈련을 강행하고 공개하는 놀음을 벌린것이다.

미국이 남조선호전광들과 작당하여 벌린 《싸드》의 원격발사대전개훈련은 반공화국침략기도와 패권전략실현에 《싸드》기지를 비롯한 남조선의 군사기지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리용하려는 흉심에 따른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이 모든 기도는 허망한 개꿈에 지나지 않는다.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공화국의 절대적힘, 초강력앞에서는 그 어떤 침략책동도 무용지물이며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수밖에 없게 되였다.

그리고 미국과 윤석열역적패당의 반공화국군사적도발책동이 가중될수록 침략자, 도발자들은 더욱 엄중한 위협에 직면할것이며 비참한 종말을 앞당기게 될것이다.

상대에 대한 오판과 제 처지도 모르는 무모한 객기로 얻을것은 수치와 재앙밖에 없다.

본사기자 황금숙

망하는 집안의 개싸움질

남조선에서 집권층내부의 갈등과 모순이 표면화되고있다.

우선 권력기관을 차지한 검찰출신들, 《윤핵관》들의 전횡과 독단에 대한 관료출신들의 반발이 거세지고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남조선집권층내부에서는 검찰출신들과 《윤핵관》들이 《대통령실》과 《행정부》, 《국민의 힘》의 주요요직들을 차지하고 실권을 행사하고있다.

이자들은 윤석열역도를 등에 업고 역도의 정치적적수제거와 로동, 교육, 년금의 《3대개혁》, 검찰수사권확대놀음을 주도하고있다.

검찰출신패들의 이러한 전횡에 대해 관료출신들은 전문성이 결여된 검찰출신들로써는 《국정운영》을 제대로 추진할수 없다고 하면서 검찰출신패들을 견제해나서고있으며 주요요직들에 전문관료출신들을 임명해야 한다고 역도에게 들이대고있다.

지난 2월 검찰출신패들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안이 통과된 후 장관직을 대행하는 차관직에 검찰출신인물을 앉히려 했을 때 전문관료출신패들이 강하게 반발한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윤석열역도의 사당으로 전락된 《국민의 힘》안에서도 《윤핵관》과 비《윤핵관》사이의 대립과 알륵이 날로 격화되고있다.

윤석열역도가 지난해 당안의 친윤석열파를 내몰아 자기의 비위에 거슬리는 당대표를 강짜로 밀어낸데 이어 최근 《전당대회》를 계기로 당지도부선거에 도전해나섰던 비윤석열파인물들을 로골적으로 압박하여 주저앉히거나 몰아대는 방법으로 당지도부를 완전히 장악하였지만 그것은 오히려 당안에서 계파들의 알륵과 모순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빚어냈다.

지금 《윤핵관》들은 래년 《국회》의원선거에서 자기파가 주류로 당선되여야 《정부》와 손발을 맞출수 있다고 하면서 벌써부터 《국회》의원후보추천에서 비《윤핵관》인물들을 배제할 흉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다.

이에 대해 비《윤핵관》들은 《윤핵관》들이 다음해 《국회》의원선거에서 저들을 모두 배제하는 《공천대학살》을 계획하고있다고 거세게 반발하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맞서고있는가 하면 윤석열역도의 각종 정책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해나서고있다.

지어 윤석열에게 붙어 기생하는 루추한 《윤핵관》들을 당에서 몰아내기 위해 모든 비《윤핵관》들이 결속해야 한다고 하면서 역도와 《윤핵관》들에게 로골적으로 반기를 들고있다.

오죽하면 《국민의 힘》안에서 《윤핵관》과 비《윤핵관》사이의 대립으로 당지지률이 야당보다 훨씬 떨어지고있다는 개탄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있겠는가.

이러한 속에 윤석열역도의 녀편네를 추종하는 세력과 친윤석열파사이의 알륵도 격화되여 집권층내부는 들쑤셔놓은 벌둥지가 되여가고있다.

이를 두고 남조선언론들은 윤석열역도의 무지막지한 《인사정책》과 설익은 《국정운영》, 안사람도 통제하지 못하는 머저리행실이 집안싸움의 원인으로 되고있다고 평하고있다.

망하는 집안에 싸움이 잦은 법이다.

추악한 권력야망과 사리사욕을 위해 모여든 악취풍기는 시정배집단인 남조선집권세력의 모순과 대립, 개싸움질은 필연적이며 망하는것은 시간문제이다.

본사기자 전명진

말말말

개탄과 분노의 목소리

—《윤〈정권〉은 이제 농민과 공존할수 없음이 분명해졌다. 〈국민〉의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 타협은 없다. 끝까지 싸울것이다.》

《전국녀성농민총련합회》 회장이 지난 4월 4일 윤석열역적패당의 반인민적악정을 단죄규탄하며 표명한 결의중에서.

—《심각해지는 일본의 력사부정, 력사외곡이 바로 윤석열〈정부〉의 굴욕외교의 결과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의 친일사대매국정책에 항의하여 《한일력사정의평화행동》이 지난 3월 30일 발표한 항의서한중에서.

봄날의 향기를 더해준 상품전시회

얼마전 공화국에서 2023년 평양지하상점 봄철상품전시회가 성황을 이루며 진행되였다.

이번 전시회는 시제품이나 견본위주보다 인민들이 선호하는 명제품, 명상품들을 더 많이, 더 질좋게 생산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진행되였다.

평양시지방공업관리국, 평양식료련합기업소, 담배련합기업소 등 경공업공장들과 각 도인민위원회 상업관리국, 도출하도매소들이 참가한 이번 전시회에는 2 060여종에 56만 2 200여점의 경공업제품들과 식료품들, 매 지방의 특색있고 다양한 농토산물들이 출품되였다.

인민생활에 적극 이바지하는 쓸모있고 다종다양한 경공업제품들과 농토산물들이 들어찬 전시회장은 볼수록 흐뭇하였다.

전시회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끈것은 각 도들에서 출품한 갖가지 특산물, 농토산물들이였다.

지난 시기 여러 전시회들에서 호평을 받아온 강원도에서는 산과 바다를 끼고있는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게 수십여종의 특산물들과 농토산물들을 출품하였다.

이곳 전시대에는 기장, 메밀, 팥, 말린 밤살, 잣 등 알곡작물들과 산열매들이 있는가 하면 고사리, 더덕, 고비와 같은 말린 산나물들도 있었다. 뿐만아니라 섭살, 대양어, 멸치를 말린 수산물들도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대성구역에서 살고있는 한로인은 자기의 고향이 강원도 통천군이라고, 전시장에 와보니 어릴적 고향에 대한 추억이 되살아나 마음이 흥그러워진다고 말하였다.

지방공업발전의 새로운 본보기로 되는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이 일떠선 김화군의 식료공장에서도 14종에 1 000여점의 갖가지 제품들을 내놓았다.

지난 기간 명제품, 명상품을 많이 만들어 온 나라에 소문난 송도원종합식료공장에서는 여러 종류의 새 제품들을 내놓았다. 강령미봉사원의 말에 의하면 코코아겹과자, 대추과자, 호박씨강정, 누룽지강정, 참깨사탕, 단나무열매단물과 같은 제품들은 아이어른 할것없이 다 좋아한다고 한다.

인민들이 선호하는 질좋은 명상품, 명제품들은 자강도의 전시대들에서도 볼수 있었다.

류옥철 자강도천연건강제품생산사업소 소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전시회에 참가하여 다른 단위들에서 만든 제품들을 보고 많은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인민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보다 질좋은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겠습니다.》

이곳 사업소에서는 오가산의 구기자, 오미자, 살구씨로 만든 꿀제품들과 함께 참나무버섯, 령지버섯, 봇나무혹버섯 등 말린 산나물뿐 아니라 여러가지 건강식품들을 내놓아 사람들의 인기를 모았다.

자강도전시대에서 사람들이 록두가루, 칡뿌리가루, 만삼가루, 삽주가루, 하수오가루 등 건강식품들을 구입하는 모습을 보느라니 우리의 마음도 즐거웠다.

그뿐이 아니였다.

초음파공기졸발생기와 휴대용초음파흡입기가 사람들의 건강과 생활에 절실한 도움을 주는것으로 하여 호평받고있을 때 기름개구리에서 추출한 영양성분들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기능성화장품들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중구역공업품종합상점 리용생산반을 비롯한 평양시의 각 구역리용생산반들에서 만든 내의류들과 이불, 모포, 각종 씌우개들을 진렬한 전시대들도 가정주부들의 발길이 그칠줄 몰랐다.

모란봉구역에 살고있는 리영순녀성은 토장은 항암 및 항동맥경화작용, 장내균증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건강식품이라며 오늘 전시회에 와서 토장을 사가지고 간다고 말하였다.

2023년 평양지하상점 봄철상품전시회는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명제품, 명상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생활을 다양하고 풍성하게 하는데서 좋은 계기로 되였다.

본사기자 김진혁

2022년 10대최우수교원들

리익선 김영금 리영숙 고관금 배혜성

최춘성 최성준 김옥경 박미화 김철민

공화국에서 후대교육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는 10명의 교육자들이 2022년 10대최우수교원으로 선정되였다.

리익선 평양제1중학교 강좌장은 지난 3년간 제1중학교부문에서 리용할 7종의 교과서와 교수참고서 등을 훌륭히 집필하고 립체연시기구를 비롯한 실험실습기재들을 새로 제작하여 학생들의 착상능력과 응용능력을 높여주었다.

김영금 모란봉제1중학교 강좌장은 인공지능기술을 리용한 가상교수체험체계와 함께 교육지원프로그람, 학생성적관리프로그람 등을 새롭게 개발하여 교원들의 전공자질과 교수능력, 학생실력을 높이는데 이바지하였다.

리영숙 신의주교원대학부속 신의주시 본부유치원 교양원도 지난 20여년간 서예, 글짓기 등에서 천성적인 소질과 재능을 가진 어린이들을 적극 찾아내고 품들여 키워냈다.

우수한 교수방법들을 창조도입하여 학생들의 창조적능력을 키워주면서 지난 20여년간 전국고급중학교부문 수학학과경연들에서 수십명의 우승자를 배출시킨 고관금 회창군 회창기술고급중학교 교원, 소학교 5학년 자연과목교수에서 학생들의 실천능력을 높여주는 교수방법을 탐구도입한 배혜성 사리원시 영광소학교 교원, 몸이 불편한 학생들의 학습지도를 맡아 학업성적을 올려세우고 지난해 구역적인 학생영어회화경연에서 담임한 학급이 련속 1등을 쟁취할수 있게 한 최춘성 함흥시 사포구역 사포소학교 교원, 수재교육사업에 이바지할수 있는 수십건의 소론문을 발표하고 자체의 힘으로 자동차운전모의기재 등 실험설비들과 기재들을 설계 및 제작한 최성준 영웅혜산제1중학교 교수지도교원들모두가 후대교육의 든든한 뿌리가 되고 밑거름이 되여온 실력가들이다.

지난해에만도 수십점의 중요도안들을 창작한 김옥경 평양미술대학 산업미술학부 의상미술강좌 강좌장, 학생들의 교수실천능력을 높여주는 우수한 교수방법들을 창조일반화하는데 기여한 박미화 평양교원대학 교육2학부 강좌장, 학생실력평가프로그람을 개발하여 전국적으로 도입할수 있게 한 김철민 원산사범대학 수학부 정보기술강좌 교원도 높은 실력으로 교수사업에서 뚜렷한 실적을 이룩하였다.

2022년 10대최우수교원칭호를 받아안은 교육자들은 오늘의 영예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가 교육부문앞에 제시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해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조선의 국주—평양소주

국주는 해당 나라와 민족을 대표하는 술로서 그 나라의 자연지리적조건과 민족적풍습 등을 반영하여 만든 술제품이다.

세상에는 력사와 전통이 오랜 이름난 국주, 명주들이 많지만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 오랜 세월 부유한 사람들만 마셔왔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인민들이 좋아하고 나라를 대표할수 있는 명주가 있어야 한다고 하시며 대동강식료공장건설을 발기하시였으며 주체98(2009)년 9월 새로 건설된 공장을 찾으시여 이곳에서 생산한 제품을 몸소 맛보시고 그 이름을 평양소주, 평양주로 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대동강식료공장에서 생산한 평양소주가 정말 좋다고, 제일 애착이 가는 술이라고 하시면서 평양소주를 공화국의 국주로 정해주시였다.

평양소주는 공화국인민들의 깨끗하고 순박하며 다정다감한 마음과 산좋고 물맑아 금수강산이라고 불리우는 공화국의 청신함을 담아 깨끗하면서도 순하고 감칠맛이 있는것이 특징이다.

본사기자

단정하고 고상한 우리 민족의 옷차림풍습

우리 선조들은 오랜 력사적과정에 민족적특성과 면모를 보여주는 고상한 옷차림풍습을 련면히 이어왔다.

우리 민족의 옷차림풍습에서 특징적인것은 우선 옷차림을 매우 다양하면서도 아름답게 한것이다. 사람들의 성별과 나이에 따라 옷의 형태와 색갈을 잘 맞추어 입은것은 그 대표적실례의 하나이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옷차림에서는 남자옷과 녀자옷의 구분이 명백하였다.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도 옷의 색갈과 형태를 적합하게 선택하여 입었다.

또한 옷차림을 언제나 깨끗하고 단정하게 하는데 주의를 돌린것이다.

깨끗한것을 좋아하는 우리 민족은 옷을 자주 빨고 깨끗이 손질하여 단정하게 입는것을 습관으로 여겨왔다.

우리 선조들은 옷차림에서 위생적인 측면에 많은 주의를 돌렸다.

그것은 녀성들이 부엌에서 일할 때 앞치마를 두르는 풍습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조선녀성들은 예로부터 정결한것을 자기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징으로 여겨왔기때문에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 때 옷차림부터 깨끗이 하였다.

또한 우리 선조들은 지나치게 사치한 옷차림을 하지 않았으며 언제나 단정하면서도 소박하고 검소하게 하였다.

언제 어디서나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다니는것을 응당한 례의로 여겼으며 방안에서와 밖으로 나갈 때, 일할 때와 명절을 맞으며 입는 옷 등 때와 장소, 철에 맞게 옷을 잘 갖추어 입었다.

그리고 늙은이들과 웃사람을 대할 때나 손님을 맞을 때, 문밖을 나설 때에는 언제나 옷차림부터 살펴보군 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 민족의 옷차림은 전반적으로 례절있고 단정한것으로 특징지어진다.

본사기자

천연고려약재를 리용한 효능높은 의약품들

학봉제약공장에서 천연고려약재를 리용하고 고려의학적원리에 기초하여 만든 당귀명반진정교갑약과 마늘나노은주사약이 효능이 높은것으로 하여 사용자들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당귀명반진정교갑약

당귀명반진정교갑약은 자률신경실조증, 갑상선질병, 고혈압으로 인한 여러가지 장애증상들 즉 머리아픔, 가슴두근거림, 가슴답답한감, 맥없기, 피로감, 신경질, 불면, 식은땀나기, 목아픔, 눈아픔, 혈압파동 등에 즉시적인 진정효과를 나타내는 천연고려약품이다.

대체로 기존의 고려약들은 오랜 기간 많은 량을 써야 효과가 나타나는것으로 되여있다.

그러나 당귀명반진정교갑약은 적은 량을 써도 즉시적으로 그리고 증상이 심할수록 더 뚜렷한 치료효과를 나타낼뿐 아니라 병을 근원적으로 치료하는 우점을 가지고있다고 한다.

❖마늘나노은주사약

마늘나노은주사약은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리우는 마늘과 광폭항균작용으로 널리 알려진 은을 첨단과학기술로 나노화하여 만든 의약품이다.

마늘의 기본생리활성물질인 알리신은 항균, 항비루스, 항진균, 항동맥경화, 항혈소판, 항종양 등의 작용을 나타내며 나노은은 각종 병원성세균과 비루스에 대한 높은 살균작용을 가지고있다.

마늘과 나노은의 억균 및 살균작용을 전통고려의학의 원리와 약성에 따라 잘 배합하여 만든 마늘나노은주사약은 무려 650여종의 병원성세균과 비루스를 죽이는 광폭항생효과를 나타내며 항생제저항균에 대한 억균작용을 한다.

손상된 세포조직에 대한 조직재생능력이 강하여 인체면역기능을 높여주는데도 좋은 이 주사약은 감기, 기관지염, 편도선염, 피부염, 방광염, 대장염 등 각종 염증치료는 물론 결핵균에 의한 질병과 소화기계통질병, 류마치스관절염, 신경통, 부인과적질병치료에도 아주 효과적이라고 한다.

본사기자

다양한 실내록화방법을 받아들여

최근 공화국의 여러 단위들에서 자연환경과 실내환경을 조화롭게 결합시켜주는 다양한 실내록화방법을 받아들여 일터의 환경을 문화정서적으로 조성해가고있다.

건물의 공간부지면적도 넓고 온실과 환경이 비슷한것으로 하여 록화조성에 유리한 평양정보기술국에서는 과학적인 비배관리를 받아들여 실내록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실내록화를 화분화하던 이전 방법을 대담하게 개조한 이들은 내부에 화단을 조성하고 거기에 관상식물들을 구획에 맞게 배치하였다.

식물의 생육에서 가장 필요한 빛조건을 위하여 빛을 좋아하는 식물들은 해비침률이 하루에 8시간이상 되는 위치에, 반그늘성식물들과 그늘견딜성이 좋은 식물들은 하루 해비침시간이 5시간 되는 위치에 놓았다.

또한 봉사홀에 부식토와 폭포수를 조성하고 정상적으로 물을 순환시키면서 식물에 필요한 대기습도를 보장하고 있다.

세연식당에서도 실내록화를 특색있게 하여 찾아오는 사람들이 아주 좋아한다.

이곳의 실내록화에서 주목되는것은 단위면적이 제한된 조건에 맞게 될수록 작은 화초들을 리용하여 식물들의 배치를 다양하게 한것이다.

이들의 경험에 의하면 소철이나 몬스테라와 같이 사철푸른 화초들은 관상적기일이 오래고 공기정화능력이 높아 실내록화조성에 적합한 식물이라고 한다.

처음 이곳에서 실내록화를 할 때에는 화초가 많지 못하였는데 환경을 문화정서적으로 조성하는 과정에 많은 경험과 상식을 얻게 되였고 화분의 개수도 늘어나게 되였다. 이로 하여 지금은 화분이 백여개가 넘어섰으며 그 수가 늘어날수록 공기가 맑아지는것이 알린다고 한다.

다가올 여름에는 야외에도 화분을 장식하게 되는데 들어오는 사람들은 록화환경을 볼 때마다 공기가 맑고 청신하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여러곳에 도입된 수직매달기식, 수경재배식록화를 비롯한 다양한 형식의 실내록화방법들과 특색있는 화초모양가꾸기도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있다.

앞으로 모든 곳에 실리있고 다양한 록화방법으로 주위환경을 문화적으로 꾸려나간다면 사람들의 생활은 보다 아름다와지고 누구나 자기 일터를 더 사랑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사화

등산놀이 (1)

글 리성덕, 그림 채대성

조선의 중서부에 자리잡은 개성은 천여년의 오랜 력사를 자랑하는 도시로도 유명하지만 여러가지 민간풍속들이 많이 전해지고있는 고장으로도 유명하다.

전해지는 향토색이 짙은 풍속들중에는 《북성귀》, 《남성귀》라고 부르는 등산놀이 풍속도 있다.

북성귀란 말그대로 북쪽의 성을 돌아온다는 뜻이고 남성귀란 남쪽의 성을 돌아온다는 뜻이다.

꽃이 한창 피는 봄철과 단풍이 붉게 타는 가을철이면 마을의 남녀로소가 좋은 날을 골라 등산놀이에 떨쳐나서는데 북성귀는 늙은이들과 장년들 위주의 가을철등산놀이라면 남성귀는 젊은이들 위주의 봄철등산놀이이다.

그렇다고 북성귀에는 젊은이들이 참가하지 않는다거나 남성귀에는 늙은이들이 섞이지 않는다는것은 아니고 경우와 형편에 따라 편리한대로 하였다.

《늙은이위주》이니, 《젊은이위주》이니 하는 말은 가을철의 단풍과 풍경이 늙은이들의 감정정서와 잘 어울리고 봄철의 꽃과 풍경이 젊은이들의 감정정서와 통한다는 리유때문에 생긴 말이겠지만 어쨌든 남성귀는 젊은이들이 즐기는 등산놀이였고 북성귀는 늙은이들과 장년들이 즐기는 등산놀이였다.

등산로정은 북성귀인 경우 북쪽의 박연폭포까지 갔다가 대흥산성을 에돌아오는 왕복 백수십리로서 여러날 품을 들이는 길이였으며 남성귀는 남쪽 진봉산과 덕물산의 산성을 돌아오는 왕복 30~40리로서 하루품을 들이는 길이였다.

이 등산놀이들이 어느때부터 어떻게 유래된것인가를 밝히기는 어려우나 먼 옛날에도 《옛날부터 해오던 일》이라고 하였고 지금에 와서도 《옛날부터 해오던 일》이라고 하는것으로 보면 그 유래가 자못 깊다는것을 알수 있다.

북성귀와 남성귀는 유래가 오랠뿐 아니라 무예를 즐기고 운동과 몸단련을 좋아하던 우리 민족의 상무적인 생활풍습과 활동적인 기질에도 맞는 개성지방의 고유한 등산운동놀이였다.

1. 남성귀

어느해 봄철이였다.

개성의 내성밖에 자리잡은 무시울동네 최서방네 집은 이른새벽부터 분주스러웠다.

첫닭울이에 제일먼저 깨여난것은 열아홉살 난 딸 보패였는데 깨여나자마자 등잔불을 켜놓고 하나밖에 없는 나들이옷을 손질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보패의 남동생인 잠꾸러기 장쇠도 《어이쿠, 늦었구나!》 하고 벌떡 일어나더니 잠이 가득 실린 눈을 비비고나서 미투리(삼실로 결은 짚신)를 손질하기 시작하였다.

《누나두 미투리코 떨어진게 있으면 얼른 내놓아. 내가 기워줄게.》

《어마나, 장쇠가 이렇게 살뜰할 때도 있구나!》

《뭐니뭐니해도 산길을 걸으려면 신발이 든든해야 한단 말이우.》

《옳다. 미투리를 잘 손질해주면 오늘 빈자(지짐) 맛있게 부쳐줄게.》

《흥, 누나 아니면 빈자 부쳐줄 사람이 없대?》

《호호호… 그러니 너를 따라다니는 계집애가 있다는거냐?》

《있지 않음. 내가 아직두 철부진줄 알아?》

《아이구, 귀구멍이 막혀죽겠구나.》

자식들이 일찍 일어나 두런두런하는 바람에 어머니 리씨가 잠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나가더니 밀쌀가루를 내느라 쿵쿵 절구질을 하였다.

절구질소리에 잠을 깬 아버지 최서방이 쿨룩쿨룩 기침을 하면서 머리맡에 놓인 곰방대를 손더듬으로 찾아쥐고 절컥절컥 부시를 쳐서 독한 엽초 한대를 붙여물었다. 그리고는 누구에게라 없이 낄낄 혀를 찼다.

《쯧쯧… 어뜩새벽부터 분주탕을 피우니…》

새벽잠을 설친 최서방이 혀를 차기는 했지만 지금 최서방네만이 아닌 온 무시울동네가 남성귀준비로 분주하였다.

사는 형편이 좀 나은 집들에서는 등불을 밝히고 화전(꽃지짐)을 부칠 쌀가루를 봉았고 살림형편이 여의치 못한 집들에서는 밀가루요, 그보다 더 못한 집들은 메밀가루를 봉는것으로 그치였다.

맵시보기에 한창인 때라 젊은이들은 새벽부터 단벌나들이옷과 신발을 꺼내서 손질하느라 분주하고 처녀들과 새각시들은 머리를 곱게 빗고 연지곤지 찍어 바르느라 바빴고 총각들과 새서방티를 벗지 못한 젊은이들은 또 그들대로 바빴다.

우선 등산놀이도 나들이인것만큼 례절상 맨상투바람이나 맨머리로 나설수 없기때문에 조막상투나 거치장스러운 총각머리태를 가리울 초립이나 석자베수건(이것으로 총각머리태를 감아넣은 둘레머리를 감싼다.)이 너무 헐망하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했고 험한 산길에 신을 짚신이며 짐을 져나를 지게도 미리 손질해놓아야 했다.

온 마을이 어뜩새벽부터 남성귀준비로 설렁거렸으나 마을앞 정자나무아래에 모두 모이라는 징소리가 쟁강쟁강 울린것은 아침해가 두어발이나 떠오른 뒤였다.

무시울은 예로부터 쇠보습이며 무쇠가마를 부어내는 무쇠장인들과 호미나 낫가락을 벼려내는 대장쟁이들이 모여사는 마을인 까닭에 쇠메질에 잔뼈가 굵어지고 가슴팍이 떡벌어진 남정들이 많을뿐 아니라 소리 잘하고 길쌈 잘하고 마음씨 싹싹하기가 이를데없는 얌전하고 맵시고운 녀인네들이 많기로 이름난 마을이다.

그래서 씨름이나 바줄당기기와 같이 힘을 겨루는 내기에서는 말할것이 없고 그네뛰기나 널뛰기 같은데서도 다른 마을에 져본적이 없었다.

남성귀나 북성귀같은 등산놀이때에도 다른 마을들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나서는것을 어길수 없는 마을의 기풍으로 여기고 있었다.

마을좌상로인이 남성귀를 떠나는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정자나무아래로 나와서 일일이 잔소리를 하여 미흡한 점이 없도록 신칙을 하였다.

사람들의 기세를 올리는데서는 뭐니뭐니해도 풍물군(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한몫을 한다. 그래서 새납은 누가 맡고 징과 북, 새장고는 누가 맡는다는것이 미리 분담되여있었다.

ㄱ-1590ㄷ 주소: 평양 통일신보사 (해외동포 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289

편집위원회